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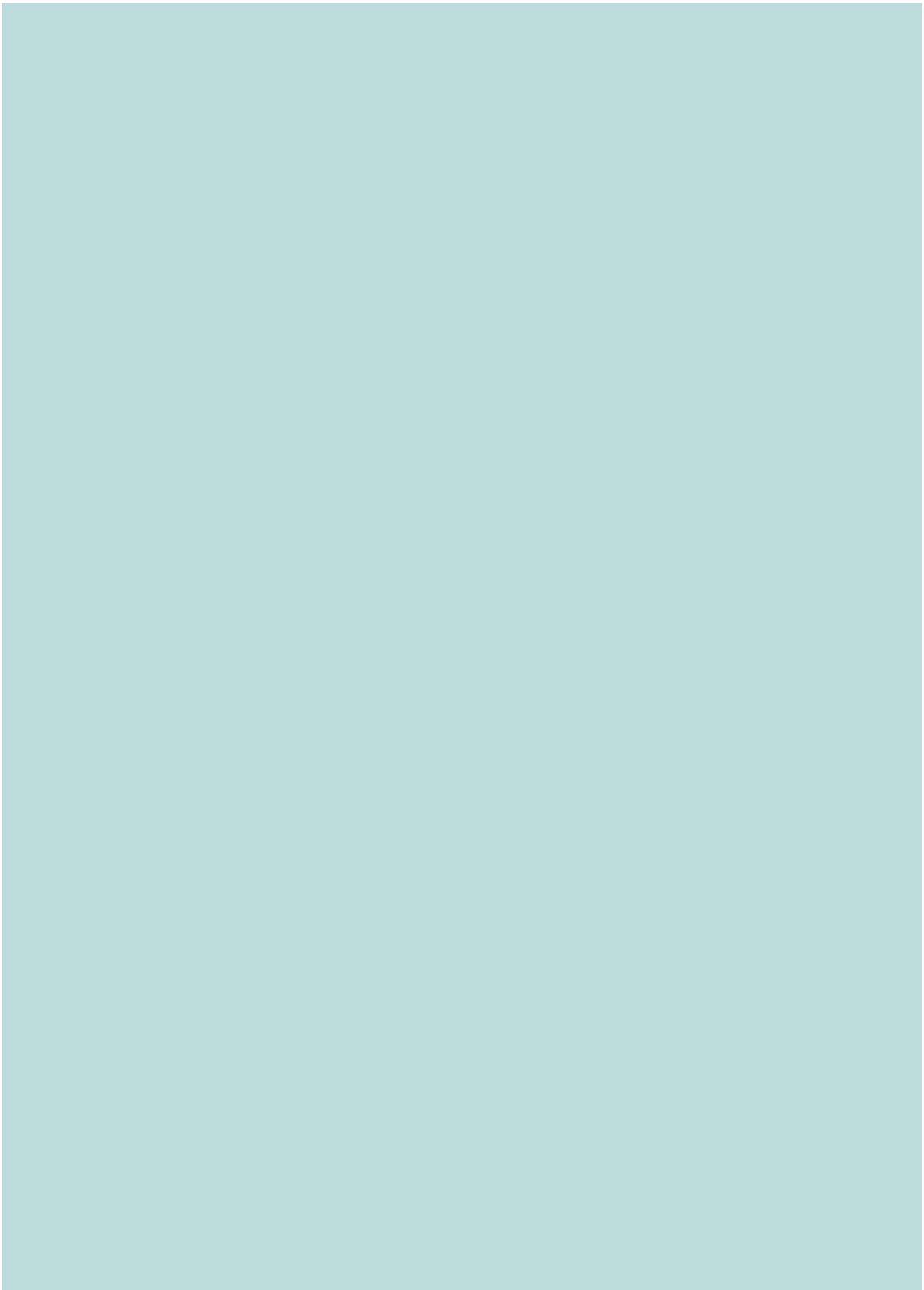
발품 팔아 찾아낸 광주 구석구석 그 가슴벅찬 풍경들!



문화관광탐험대의 네번째

광주견문록

광주견문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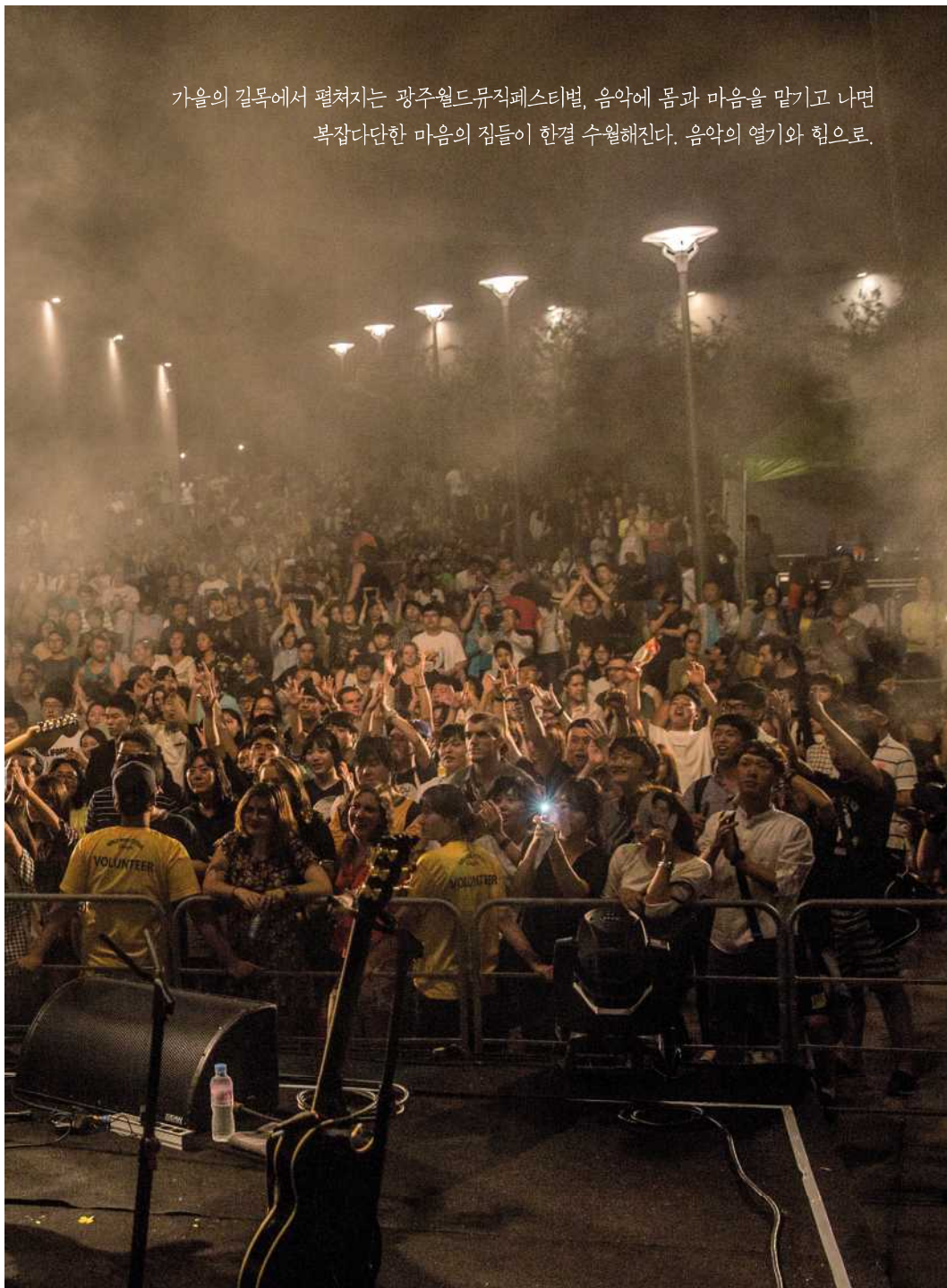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 고은 詩 「낯선 곳」中



가을의 길목에서 펼쳐지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나면
복잡다단한 마음의 짐들이 한결 수월해진다. 음악의 열기와 힘으로.





굳이 구도를 잡지 않아도 저절로 사진이 되는 풍경들이 있다.
광주 옛마을에서 만난 나무숲 풍경이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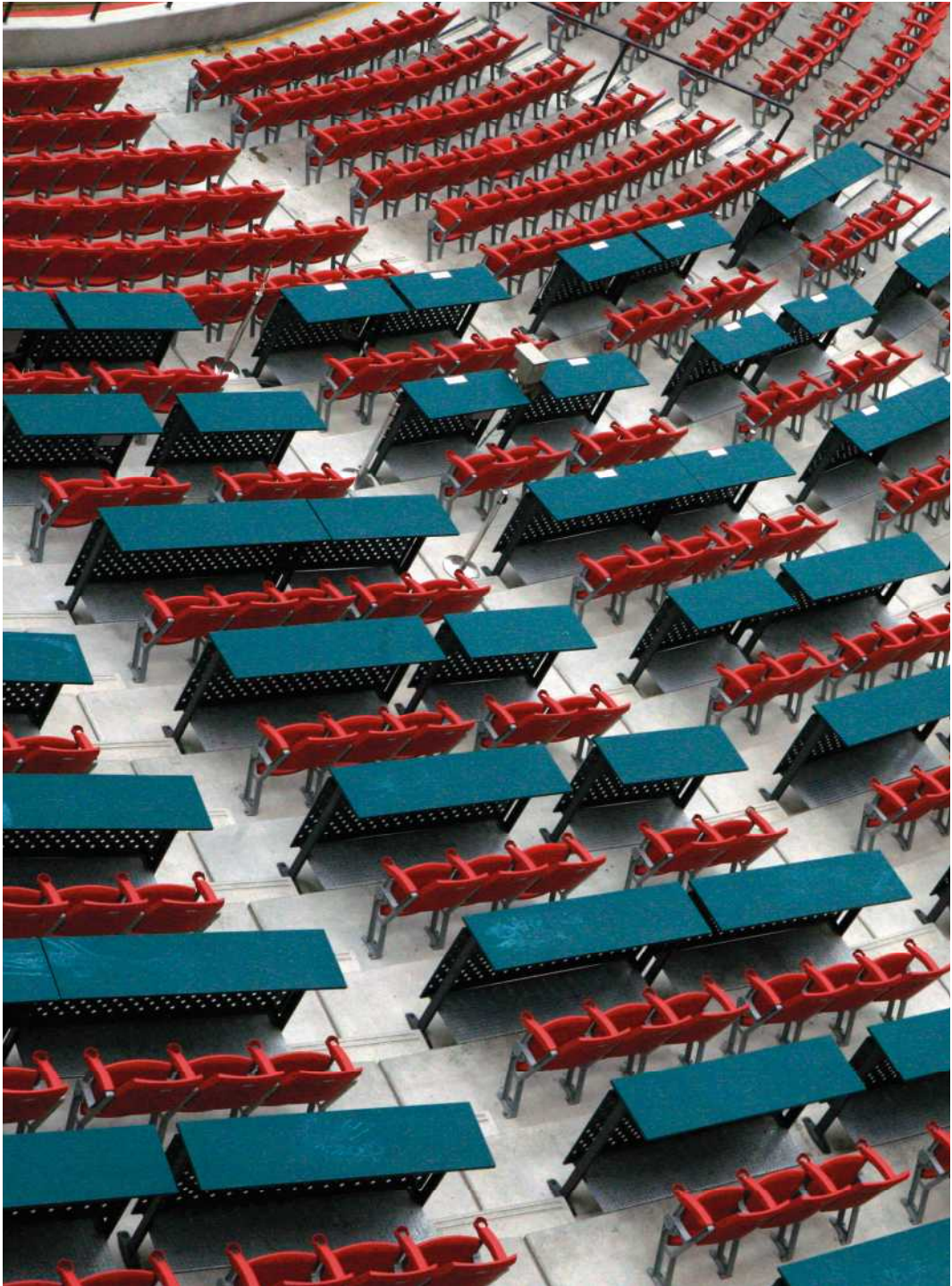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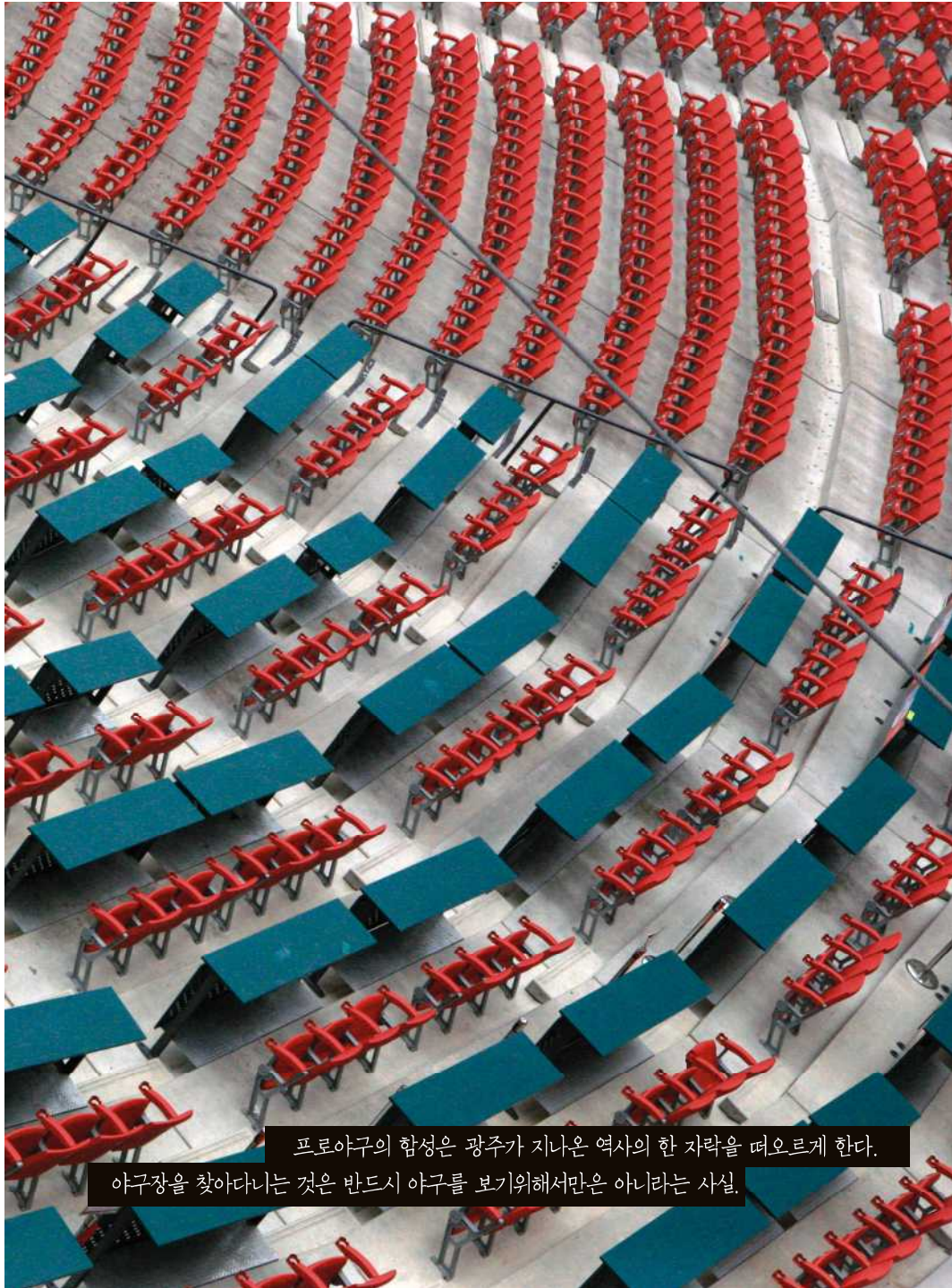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전국 최대규모의 예술야시장, 광주대인시장의 별장에는
백화점에도 없고, 인터넷 쇼핑물에도 없는 '별 것' 들이 다 나온다.



골목을 걸어야만 눈에 들어오는 소소한 일상의 그림자들
그 어떤 화려한 것들 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풍경.





프로야구의 함성은 광주가 지나온 역사의 한 자락을 떠오르게 한다.
야구장을 찾아다니는 것은 반드시 야구를 보기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



크고 편리한 것들이 대세인 시대
낡고 불편하고 한적한 간이역.
극락이라는 이름 때문에 눈길이 더 오래 머무는 극락강역.

발품 팔아 찾아낸 광주 구석구석
그 가슴벅찬 풍경들!

문화관광탐험대의 네번째



광주겨문록



청춘여행의 닳을 올려라!

한밤중의 뜨거운 음악축제 |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 24

단언컨대 최고의 심야데이트 코스 |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 32

야구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챔피언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 40

강바람 타고 먼 바람 속으로 | 영산강 자전거 길 · 48

대학은 한 도시의 영혼이다 | 전남대학교 · 54

퇴근길 자유대학으로 고고씽! | 복합 문화 공간 해외문화예술공간 · 60

무지개다리 아래 문화종합선물세트! | 중외공원 문화벨트 · 64

소낙비가 쏟아져도 천둥이 쳐도 여기라면 괜찮아! | 터미널 문화병커 유 · 스퀘어 · 68

노래로 굶는 빵은 어떤 맛일까? |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 72

울도 담도 없는 음악회 | 무등산 풍경소리 · 76

열정이라는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온 클래식 | 광장음악회 · 81



낭만식객, 이곳에서 길을 잃다

꽃게장 무한리필의 감동 | 광주 동곡마을 꽃게장 백반거리 · 86

할머니들이 차려주시는 소박하고 푸짐한 만찬 | 자산동 보리밥거리 · 88

따뜻하고 진하고 구수하다! | 새벽에 맛보는 양동시장 국밥 · 90

갈비 굽는 냄새의 치명적 유혹 | 송정떡갈비 골목 · 92

중국 본토의 양꼬치구이를 맛보는 광주 속 중국 | 외국인음식점 거리 · 94

카메라 챙겨들고 이 거리로 소풍 가자! | 광주의 가로수길, 일곡음식문화거리 · 96

미술품 비엔날레를 지나니 맛의 비엔날레가 펼쳐진다 | 용봉지구 맛집 순례 · 99

이탈리아 커피의 자존심 케냐 에스프레소 · 102

열린 문화 복합공간 - COBOC, #reboot, goût · 105



광주의 리얼 빈티지

역사와 예술의 무게가 깊이 다가온다 | 최승효가옥과 최인준미술관 · 110

누룩달인이 만들어내는 빛이 나는 누룩, 소율곡(素율麴) | 송학곡자 · 115

뼈대있는 광주 막걸리의 품미

- 송정금천주조장 쌀막걸리 · 120

- 청풍주조장 무돌 生 저자거리 맑은술 · 122

- 서부주조장 어등산 막걸리 · 123

내 마음을 담아 연 한번 날려보자! | 남도민속연제작소 · 124

아직도 낫이나 호미 만드는 대장간이 있어? | 송정5일장 대장간 · 128

진짜 득템할 거리들은 여기 다 있었구나!! | 호남권 시장들의 큰 형님, 양동시장 · 132



아무 것도 아닌 풍경들의 절절함

무등산 잣고개에서 광주의 밤을 바라보다 · 140

밤에 보니 산동교가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처럼 낭만적이네! · 142

원당마루에서 수완의 밤을 바라보다 · 144

무등산이라는 풍경화 아래 미술관들이 모였네 | 윤림동 미술관 거리 · 146

도시에 둘러진 아름다운 녹색띠 | 광주 푸른길 · 150

그 공원을 건다보니 시집이 한 권 | 광주공원 사직공원 사비길 · 154

시인들을 길러낸 시인의 학교 | 광주고등학교 문학관 · 156

오늘은 그 동네에서 신나게 놀아볼까? | 염주동 & 풍암동 · 158

광주쌍암호수공원 · 164

양산호수공원 · 166





세상에 없는 시간들 속으로!

1950년 국군에 의해 폭파되었던 비극의 다리 | 영산강 위 옛 산동교 · 170

극락강역에 내리면 '극락'같은 평온을 맞볼 수 있을까? | 극락강역 · 174

역사의 격랑을 살아야했던 청춘들의 흔적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 광주제일고등학교 · 178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들고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 버드나무를 찾아라! | 나주오씨 집성촌 내동마을 · 184

400살 넘는 귀목을 보고 용추계곡을 향해! | 무등산 능선 용연마을 · 188

2백년 된 돌담길을 걷고 돌아 연자방아를 만나다 | 삼도동 쌍내마을 · 190

350년 전 방죽과 왕버들이 아직도 있어? | 벽화가 아름다운 하원미를 완동방죽 · 194

5·18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슬픈 마을 | 솟대로 상처를 달래는 주남마을 · 198

육판리 채소로 유명한 무궁해 마을 | 여섯 판정승이 나올 지세 육판리 · 200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 | 광주 광산의 3대 동천(洞天) 이야기 · 202

까치가 많이 사는 마을 숲! | 동림(東林), 작림(鵲林)마을 · 206

동약(洞約)과 향약(鄉約)의 깊이보기 | 양과동정(良瓜洞亭) · 206

원림(園林) 아름다운 숲 | 晩翠亭(만취정) · 207

고봉(高峯)의 혼이 깃든 정자 | 칠송정(七松亭) · 208

문화관광탐험대의 노트 · 211



발품 팔아 찾아낸 광주 구석구석
그 가슴벅찬 풍경들!

광주, 익숙함 속의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광주문화재단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문화관광탐험대 활동이 4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명인, 명소, 명품 탐험활동 대신 테마 별 주제를 정해 책 구성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청춘여행’, ‘낭만식객’, ‘리얼 빈티지’, ‘풍경들의 절절함’ 등의 목차를 통해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감성적 느낌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탐험대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활동가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부, 교사, 숲 해설가, 택시기사 등 평범한 시민 동호인으로서 광주의 아름다움과 의미 있는 공간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는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이번 책에는 무등산 풍경소리, 주조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유·스퀘어 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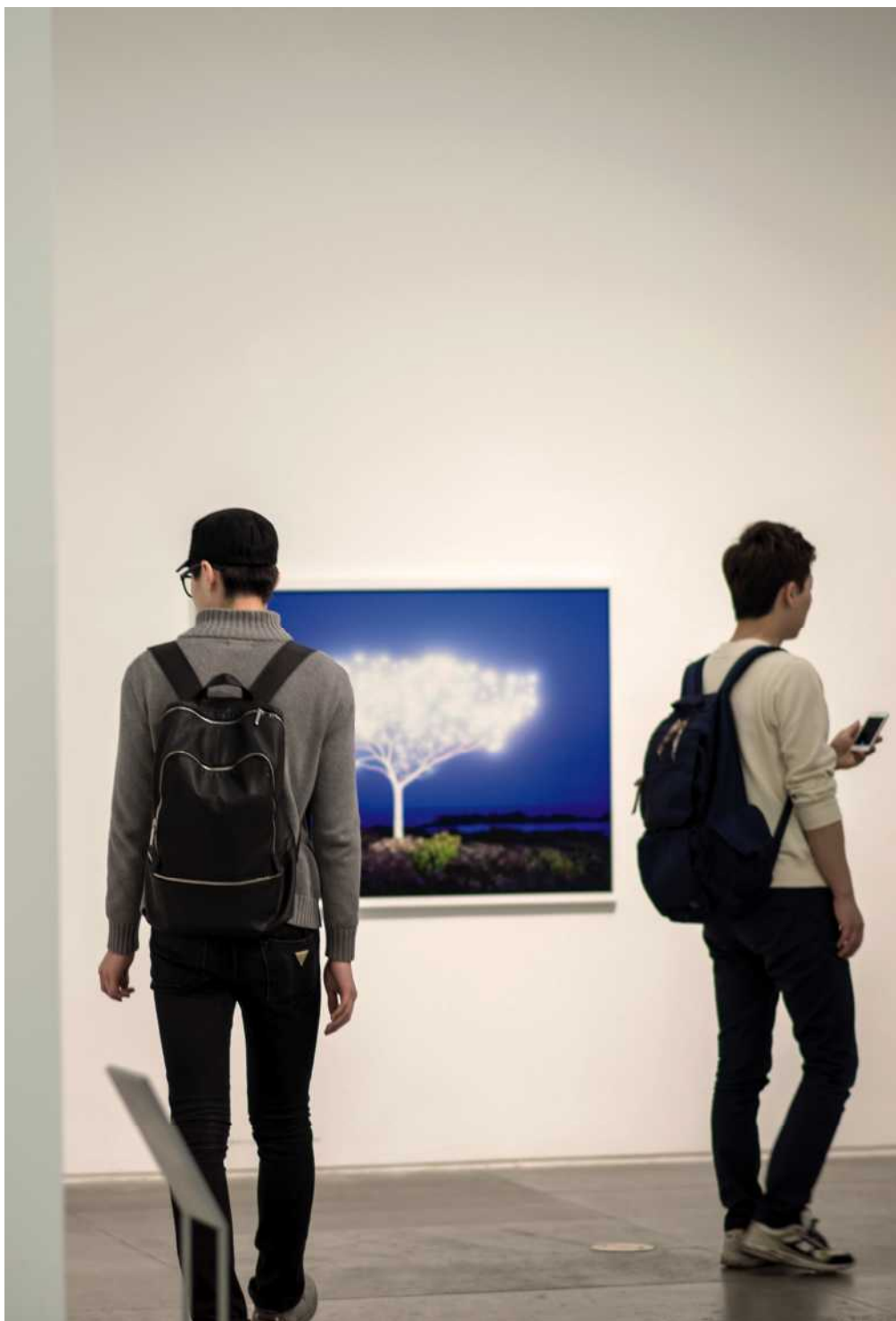


익숙한 공간에서는 시민의 정서적 기억을 불러일으켜 내고, 새로운 공간들은 시민의 기억에 익숙하도록 글과 사진을 엮었습니다.

이제 탐험의 결과가 한권의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탐험대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진수 탐험대장님을 비롯해 문화관광탐험대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 책을 들고 광주의 새로운 곳과 익숙한 곳을 낯선 시선으로 탐색해볼 생각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내년에도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발행을 약속드리면서 기억의 공유를 넘어 시민공동체의 실핏줄을 이어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 영 진





청춘 여행의 답을 올려라!

나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냐
나두야 가련다

아늑한 이 향군들 손쉽게야 버릴거냐
안개같이 물어진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뿔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 박용아 시 '떠나가는 배' 중

1904년 전남 광주생,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등을 편집간행, 1936년 별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
난 사실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자유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났다.

“다 까불지 말라고 해. 음악이 겁이야”

도심 한가운데 넓고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사람들은 돛자리를 깔거나 낚시 의자를 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는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든 사람, 맥주를 한잔 하는 사람,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앉은 사람. 잔디광장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고 공연이 시작되자 잔디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는 사람, 무대 가까이로 다가가 환호성을 지르며 격렬히 몸을 흔드는 사람, 앉아있는 이들도 어깨춤으로, 뜨거운 박수소리로 열띤 호응을 보냈다. 조명과 음악과 사람들의 열기가 뒤엉키면서 잔디광장에는 회오리가 이는 듯 했다. 조금 전까지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토록 뜨거운 에너지가 숨어있었나? 놀







사진제공 : 나승렬

라운 눈길로 사람들을 돌아본다. 광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 흡사 유럽의 한 도시에 와있나?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4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8.30-31)의 광경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을 앞두고 열린 2014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자라섬국제 재즈페스티벌’을 기획한 인재진 감독의 지휘아래 펼쳐졌다. ‘메인 스테이지’, ‘서브 스테이지’, ‘오픈 스테이지’ 3개의 무대에서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월드뮤직의 스펙트럼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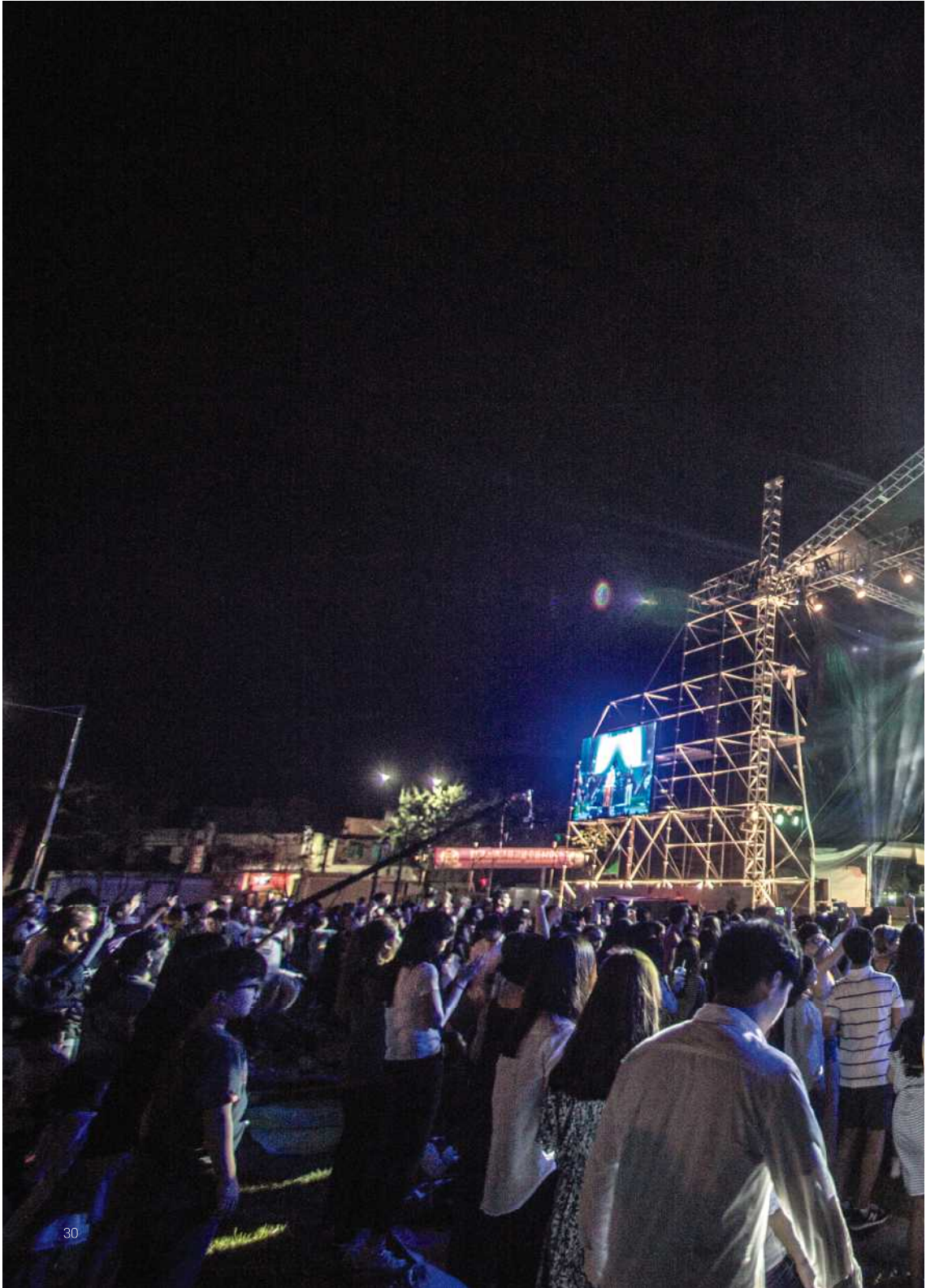
콩고의 흥겨운 리듬과 멜로디에 유럽의 도시적 감각을 융합시켜 강인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주피터 앤 오케스 인터내셔널, 세계적 타블라 연구자 카쉬 케일, 쿠바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마이라 안드라데, 국악연주자들과 재즈 뮤지션들이 만난 모자이크코리아, 가수 이상은이 메인스테이지를 채우며 개성 넘치는 공연을 펼쳤다. 서브 스테이지에서는 마푸키키, 니나 반 혼, 킹스턴 루디스카, 최고은, 사우스카니발, 오랑고가 등이 뜨거운 열기로 관객들과 혼연일체의 공연을 펼쳤다.

올해로 5회를 맞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예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분위기를 선사했다. 아마도 무대를 완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긴 탓이리라. 우선 역대 가장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외국인들이 먼저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젊은 관객들이 뒤를 이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춤추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음악이라는 강렬한 힘이 수줍음, 뻔뻔함을 없애준 탓이리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자유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났다.

“다 까불지 말라고 해. 음악이 갑이야”

가을의 길목에서 펼쳐지는 광주국제월드페스티벌,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나면 복잡다단한 마음의 짐들이 한결 수월해진다. 음악의 열기와 힘으로. 

*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해마다 8월-9월 사이에 열린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사무국 : T. 062-410-3207







예술과 시장이 야밤에 만나니
단언컨대 최고의 심야데이트 코스

대인예술야(夜)시장 '별장'

생각해보면 예술과 시장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

부담없이 놀고 보고 마시고 즐기다보면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 모른다.

내 삶은 예술성과 시장성,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

만 원 짜리 한 장이면 비빔국수와 떡갈비 또띠야를 먹고, 여친에게 반지까지 선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거리공연, 화가들의 그림전, 예술가들의 수공예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면? 게다가 여친과 키스하기 안성맞춤인 은은한 불빛 내리는 좁은 골목길들이 사방 구석구석으로 열려있다면?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면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전국최대규모의 예술야시장, 광주대인시장의 별장에 와보시라. 재래시장이 파할 무렵, 불이 밝혀지는 이 별난 장에는 백화점에도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도 없는 '별 것'들이 다 나온다.

대인예술시장에서 활동 중인 상주작가 41명이 펼치는 회화, 조각, 사진, 도예, 공예, 영상, 건축,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 '다다 아트페어'. 아트카페일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의 예술포장마차에서는 작가가 진행하는 아트경매를 통해 작가들의 소품도 구입할 수 있다. 그뿐인가? 대인시장상인들이 판매하는 곱창이며 순대, 두부, 국수 등 추억 돋는 맛깔난 음식들이 구수한 풍미를 자랑한다. 예술가들이 손수 제작한 수공예 작품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시장을 한 바퀴 돌라치면 골목길마다 게릴라 공연이 펼쳐진다. 예술과 시장이 만나서일까? 부담 없이 풍요롭고, 풍경마다 예술이다.

1976년 문을 연 대인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재래시장 중 한 곳이었다. 없는 물건이 없고 항상 사람들로 붐벼 300여개의 점포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 규모있는 시장마저도 재래시장들이 겪는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쇠락했다. 시장규모는 줄고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절반이 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작가와 문화기획가들이 시장에 등지를 틀기 시작했다. 입주하면서 시장상인들과 예술가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는 삶의 장으로 풍모를 갖춰갔다. 시장에 입주한 예술가들은 예술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11년부터 야시장 문을 열었다.

대인예술시장을 구석구석 소개받고 싶다면 시장주차장 옆 웰컴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수작업자들의 공동작업 공간인 메이커스 스튜디오, 작가들의 상시 작품 전시와 판매하는 안테나 숍, 초미니 갤러리 한평 갤러리, 상주작가 레지던트 24명이 주차장을 리모델링한 아트 파킹 프로젝트, 아래층은 갤러리 위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꾸며진 미테-우그로 (Mite-Ugro) 게스트하우스(ZAZA), 작은 도서관과 갤러리를 병합한 갤러리 대인을 둘러볼 수 있다.



예술야시장이 설 때면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천원국수집, 천원 백반집(해뜨는 식당), 고향의 인심이 훈훈한 국밥집, 돼지불고기와 오리고기집, 할매추어탕 등 믿고 찾아갈 음식점들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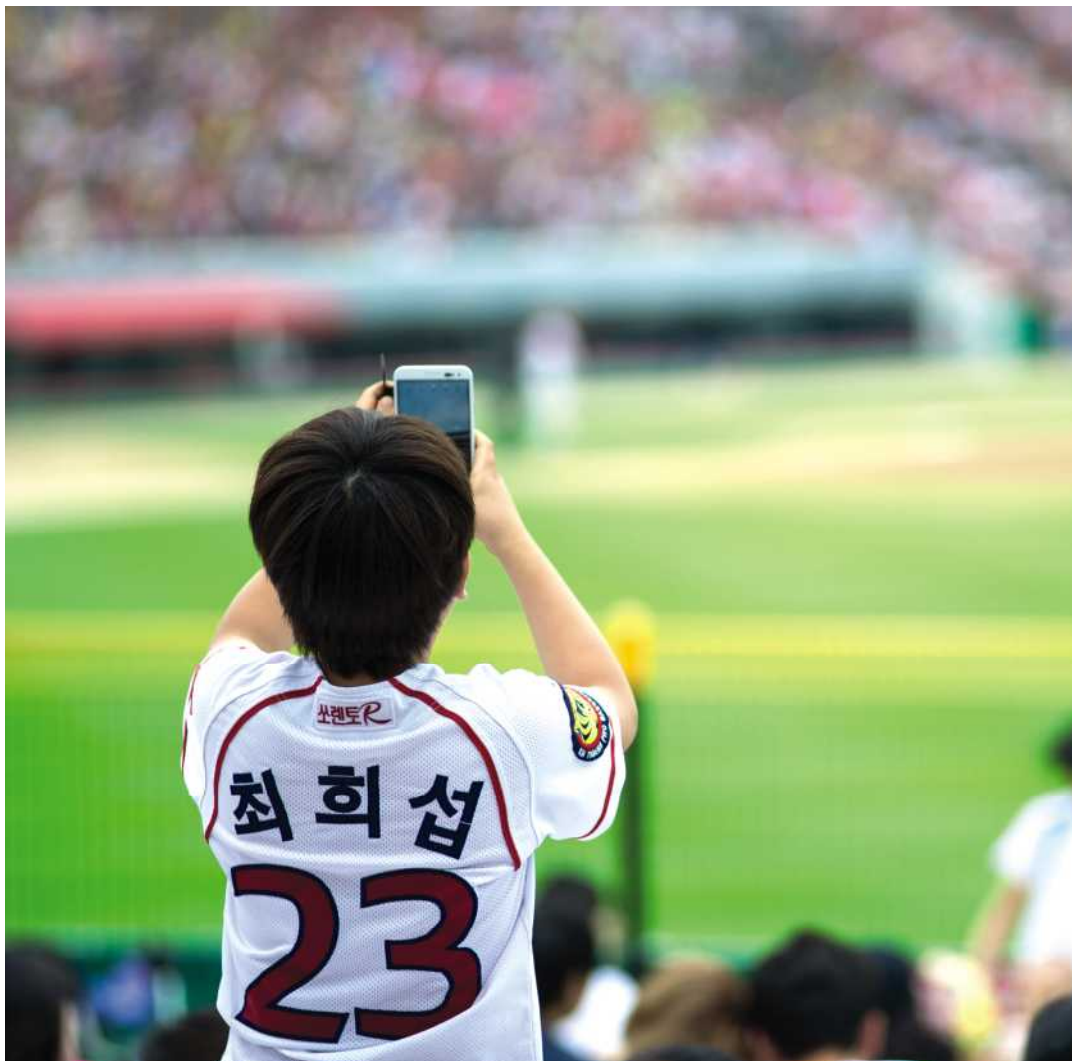
공연을 보고 작품을 보다가 시장골목에 눈길을 던져봐도 좋다. 골목 구석구석에서 재래 시장만의 눅눅하고 오래된 향기같은 게 묻어난다. 사람의 냄새같기도 하고, 세월의 냄새같기도 한.

생각해보면 예술과 시장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 부담없이 놀고 보고 마시고 즐기다보면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 모른다. 내 삶은 예술성과 시장성,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 어두침침한 야시장을 빠져나오다보면 느끼게 될 것이다. 단언컨대 이곳은 최고의 심야데이트코스라는 것을. 함께여도 좋고, 혼자라 해도 나쁠 것 없는. 🚶‍♀️

*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사무국 : 동구 제봉로 194번길 7-1 대인시장 내
062-233-1420 E-mail, byeoljang@naver.com







야구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챔피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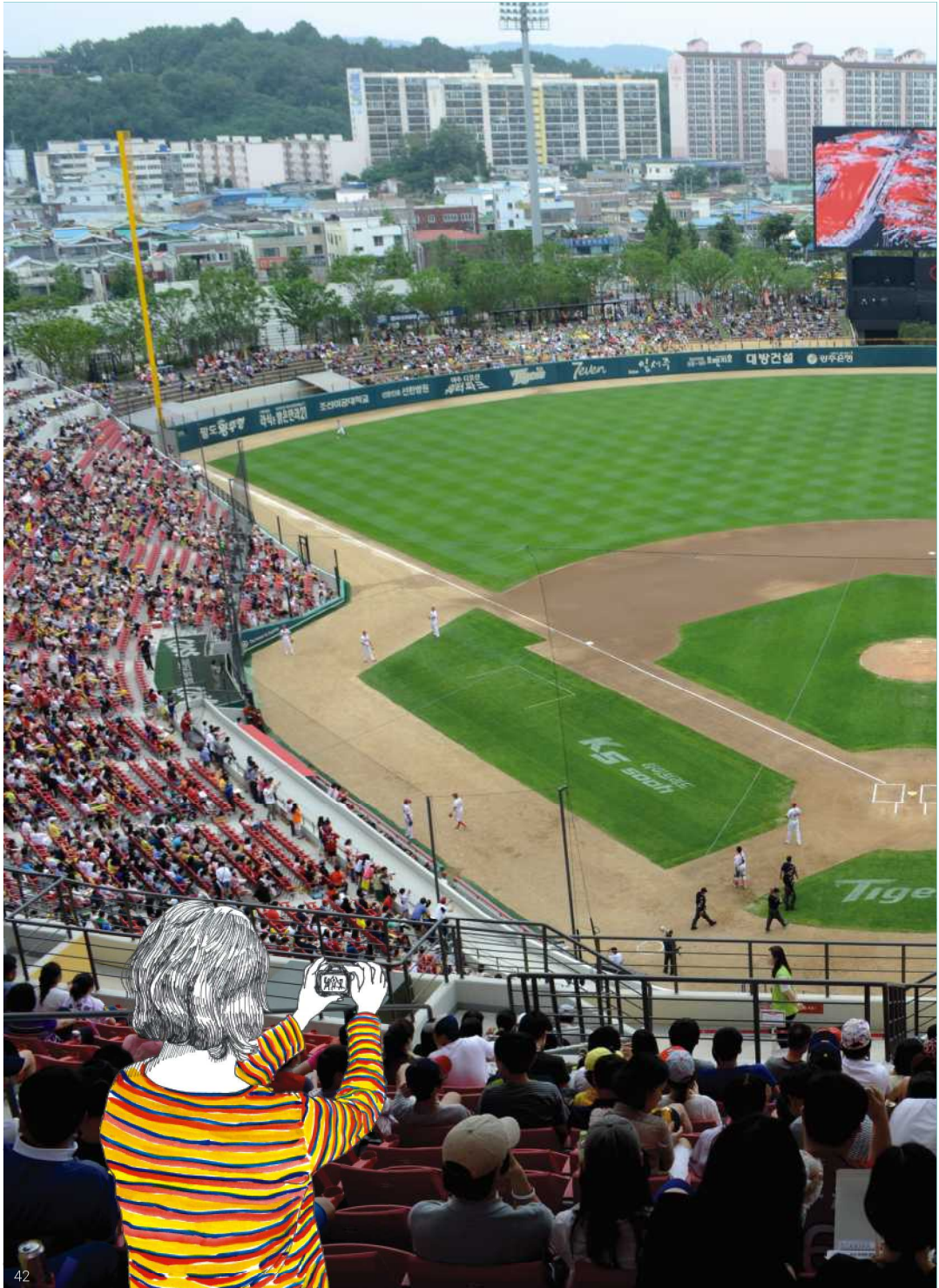
일본 소설가 오쿠다 히데오처럼
당신도 야구와 맥주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강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맥주와 야구만 있으면 행복하다! 일본의 소설가 오쿠다 히데오의 이야기다. 「공중그네」, 「남쪽으로 튀어」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의 책 가운데 「야구장 습격사건」이 있다. 주니치 드래건즈 캠프가 있는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시코쿠, 히로시마 그리고 바다 건너 대만까지 지방과 해외 구장을 찾아다니며 야구를 관람하고 그 지역 영화관과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좌충우돌 야구장 순례기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알게 된다. 야구장을 찾아다니는 것은 반드시 야구를 보기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스트레스로 가득한 인생에서 야구장 여행은 참으로 행복한 순례라는 사실을.

오쿠다 히데오처럼 야구장 순례를 꿈꾸는 야구팬 및 야구장 팬들에게 강추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마침내 광주에도 생겼다. 공식명칭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옛 무등경기장 시절부터 골수팬이었던 이들이 붙여준 애칭은 ‘뉴(new)등구장’이다.

새 야구장이 지어진 곳은 1965년 10월 1일 제46회 전국체전을 위해 야구장과 같이 건설된 무등경기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과 시비, KIA타이거즈 투자금 등 총 994억 원의 거금이 투자된 챔피언드 필드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7,646㎡ 규모로 일반석 12,628석, 지정석 5,039석, 스카이박스석 576석, 이벤트석 1,154석, 잔디석 2,847석을 갖춘 명실상부한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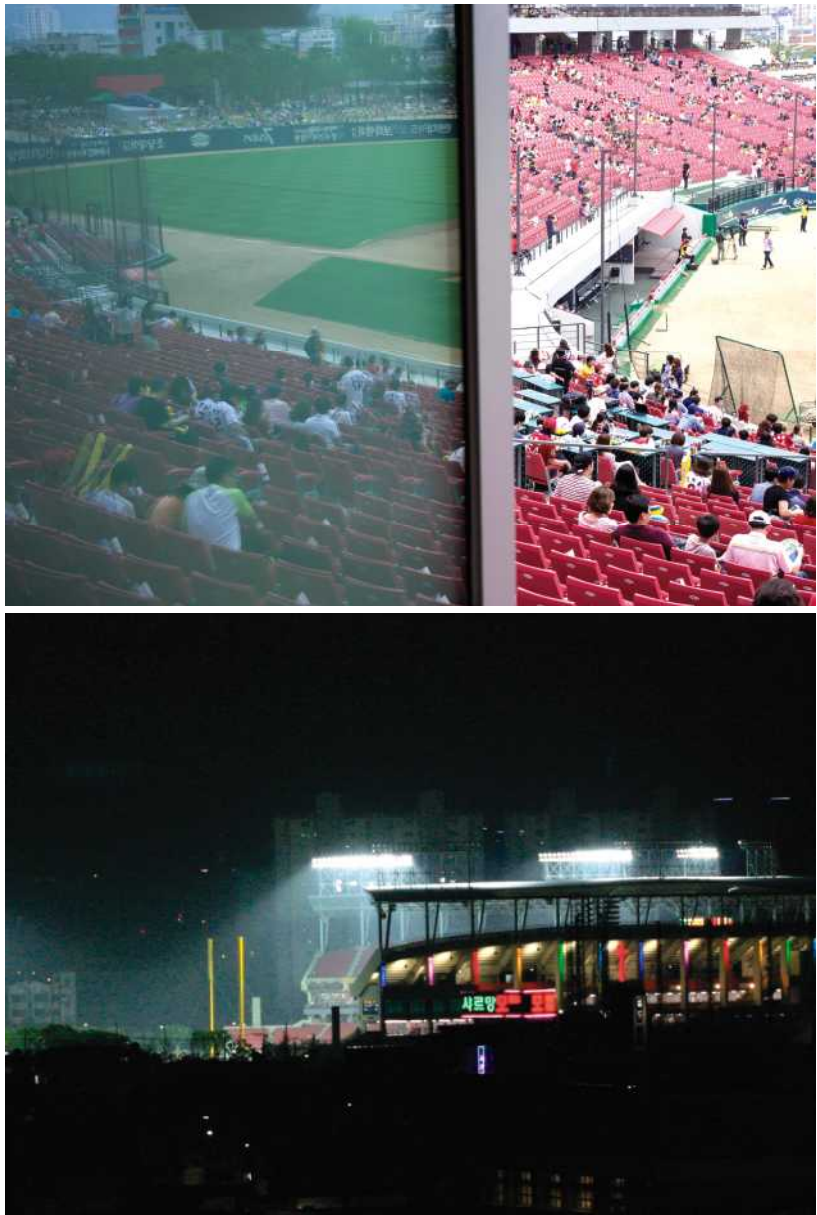
홈플레이트에서 관중석까지 거리가 18.5미터로 전국 야구장 중 최단거리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로 개방형 중앙통로 도입으로 관람객이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경기관람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다. 울산이나 인천에 있는 바비큐 식은 없다. 대신 소파와 TV, 에어컨, 정수기, 테라스가 갖춰진 스카ibox가 있다. 전광판은 국내 최대 규모(35m×15m)의 풀 HD급으로, 잘생긴 이대형 선수의 땀방울까지 보인다.

내야 관람을 선호하는 관람문화를 반영해 전국 최대 규모로 내야 관람석(19,419석)을 설계했고 장애우 전용 관람석을 신설했으며,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의 1.8배 정도 많이 지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홈 관중석인 3루에서는 경기 내내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 복구 서림로 10 T.070-7686-8040



광주와 무등산,
그리고 프로야구의 함성은
광주가 지나온 역사의 한 자락을 떠오르게 한다.
1982년에 시작된 프로야구의 역사에서
10번의 우승을 일궈낸 타이거즈는
광주사람들에게 기쁨이자
역사의 고비를 함께 건넌 벗이었다.







강바람 타고 먼 바람 속으로
영산강 자전거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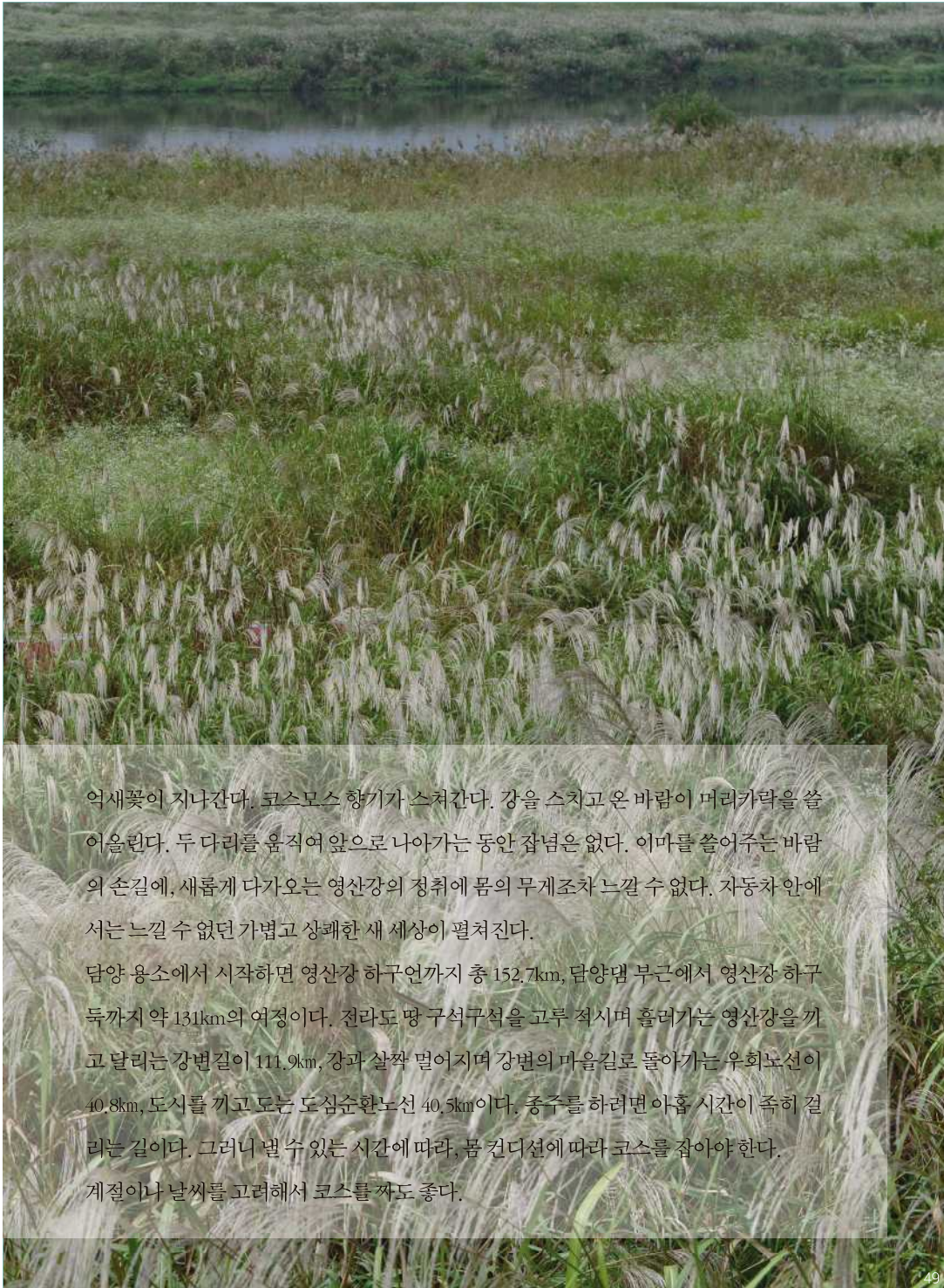
급하게 빠르게 달릴 이유도 없다.

달리다가 잠시 내려 자전거와 걸어도 좋다.

언제나 묵묵히 흐르며 사람을 품고,

시간을 품어온 영산강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 하나의 풍경이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강을 따라 흐르는 내 마음의 풍경이.



억새꽃이 지나간다. 코스모스 향기가 스쳐간다. 강을 스치고 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어들린다. 두 다리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잡념은 없다. 이마를 쓸어주는 바람의 손길에, 새롭게 다가오는 영산강의 정취에 몸의 무게조차 느낄 수 없다. 자동차 안에서 느낄 수 없던 가볍고 상쾌한 새 세상이 펼쳐진다.

담양 용소에서 시작하면 영산강 하구언까지 총 152.7km, 담양댐 부근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약 131km의 여정이다. 전라도 땅 구석구석을 고루 적시며 흘러가는 영산강을 끼고 달리는 강변길이 111.9km, 강과 살짝 멀어지며 강변의 마을길로 돌아가는 우회노선이 40.8km, 도시를 끼고 도는 도심순환노선 40.5km이다. 종주를 하려면 아홉 시간이 족히 걸리는 길이다. 그러니 뭘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몸 컨디션에 따라 코스를 잡아야 한다.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해서 코스를 짜도 좋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 용소에서 시작하면 영산강 하구언까지 총 152.7km,
담양댐 부근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약 131km의 여정이다.





영산강 하구 둑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오르는 길은 하구 둑에서 소뫼이 나루터까지가 14.8km, 소뫼이 나루터에서 무안 느리지까지 21.2km, 무안 느리지에서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까지가 17.2km,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나주평야까지 15.3km, 나주평야에서 승촌보까지 11.4km, 승촌보에서 광주 풍영정까지 23.3km, 풍영정에서 담양 대나무 숲까지 9.5km에 달한다.

하지만 어떤 코스를 골라도 영산강 자전거 길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시를 지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차들이 많지 않아 안전하고 한적하다.

자전거를 달리다 체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맛깔난 전라도 별미를 만나볼 수 있다. 담양국수, 송정떡갈비, 나주 곰탕, 영산포 홍어, 구진포 장어, 독천 낙지 등이 영산강을 자전거로 달리다가 만나볼 수 있는 별미들이다.

담양댐, 메타세쿼이아길, 담양대나무숲, 승촌보, 죽산보, 느리지 관람전망대, 영산강 하구둑에 종주인증센터가 있다. 영산강문화관에는 생태공원, 오토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으니 캠핑과 휴식을 겸해도 좋다.

영산강 자전거 안내센터에서는 자전거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선택 요령과 점검 및 관리, 안전 운전수칙, 장거리 자전거 여행 준비 요령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 영산강문화관 : T. 062-600-2196, 335-0861

대학은 한 도시의 영혼이다

전남대학교

유럽문명의 탄생지 아테네에

최초의 대학 아테네학당이 있었듯

뜨거운 한국 역사에도 대학이 있었다

전남대학교가 대표적이다.

도시의 영혼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서구 유럽문명의 탄생지인 아테네에는 최초의 대학인 아테네 학당이 있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피타고라스 등이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토론했다. 아테네 문명은 바로 지혜의 집인 아테네 학당에서 꽃피운 것이다.

대학이 한 도시의 역사와 함께 숨쉬어왔고 도시의 영혼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는 곳이 광주에도 있다. 바로 전남대학교다.

지역 인재들을 배출하는 요람으로 설립되었다가 뜨거운 현대사를 건너오면서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전남대학교. 정문 옆에 5·18민중항쟁 사적 1호라는 표석이 그 역사를 증거한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만큼 캠퍼스 곳곳에 서있는 굼직한 나무들이 시원스럽다. 정문을 들어서면 시원하게 뻗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나오고 정문 왼쪽 길로 넘어가





면 농업생명과학대학 쪽의 수목원이 아름답다.

대운동장과 공연장을 지나 후문 쪽을 향하면 부레옥잠이 빼곡히 들어선 넓은 호수가 보인다. 풍수지리에 광주는 빛이 승하고 물이 약한 곳이었는데 광주의 중심에서 빛의 승기를 막아주던 경양방죽을 일제가 강제로 메워 버렸다고 한다. 이후 1960년대에 광주시가 태봉산의 흙을 이용해 완전 매립했다.

사라진 경양방죽의 역할을 대신할 호수를 만든 것이 바로 이곳 전남대 호수다.



호숫가 벤치에는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많다.
 광주 출신 가수 장범준은 꽃송이라는 노래에서
 전대 호수 걷자고 꼬셨다고 했던가? 전대 호수도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손색없는 아름다움과 낭
 만을 지녔으니 맘에 품은 연인에게 전대 호수 걷
 자고 꼬셔볼 것!
 현대사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해온 전남대의 역사
 가 더 궁금하다면 새로 설립된 역사관을 둘러보
 아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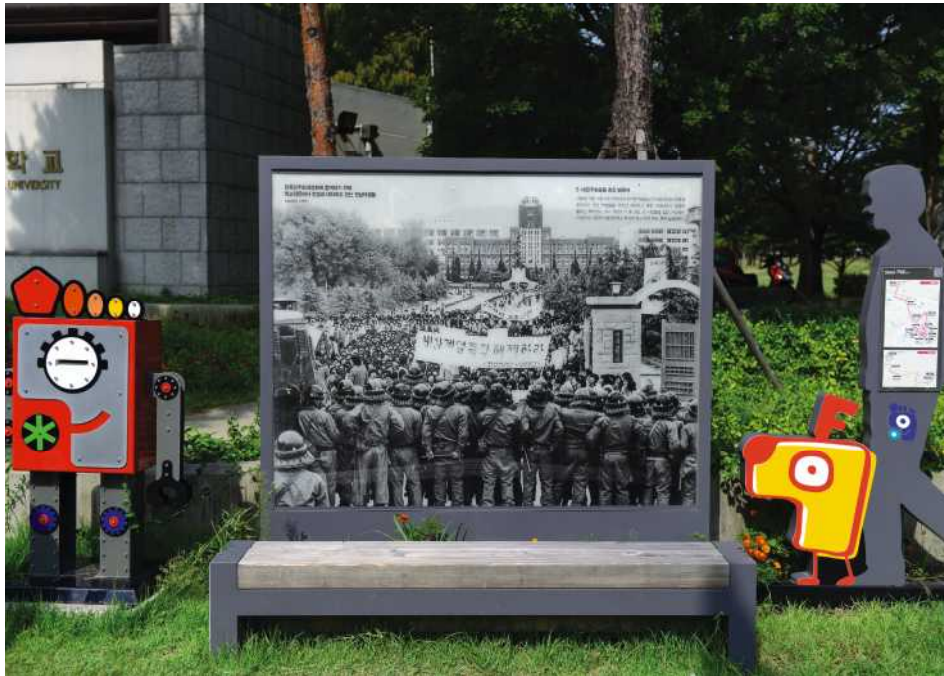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후문은 밤의 불빛이 더 화려한 곳이다.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카페, 주점들이 밀집되어있다. 서점이나 작은 주점들 대신 너무 화려한 상가들이 들어찬 게 아쉽기도 하지만 대학가의 열기를 느낄 수는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술이나 사람이 고픈 광주사람들이 약속장소로 택하는 맛집 술집 밀집 지역이기도 하다. 🚗

* 전남대학교 : 북구 용봉로 77 T. 062-530-5114





퇴근길 자유대학으로 고고씹!

해외문화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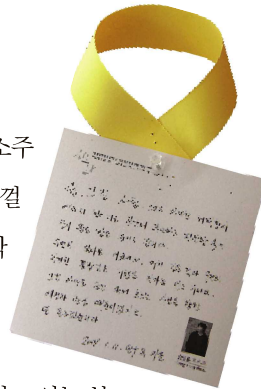
취업도 스펙쌓기도 아닌

진짜하고 싶은 공부하러 가는 대학이

존재한다면? 복합문화공간 해외에는

그런 꿈을 지닌 이들이 모여든다

퇴근길에 생각나는 것은?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판 위 삼겹살과 소주 한잔? 하루의 갈증과 허기를 풀어줄 치맥? 하지만 그런 왁자지껄 음주가무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퇴근길 자유대학 해외를 찾아볼 일이다.



퇴근길 자유대학이라는 별칭으로 시작해 다양한 인문강좌를 열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해외. 인문학, 역사, 문학, 철학 등의 해외 강좌는 백화점 문화센터식 강좌처럼 말랑말랑하지 않다. 독일 비판이론 2세대를 대표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을 텍스트로 현대라는 시대와 현대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의 탄생을 짚어 보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살펴보는 강좌, '한민족 상고사 이야기'를 담은 사진가 박하선의 사진을 토대로 백제시대까지의 한민족 역사를 짚어보는 강좌 등 그 폭이 깊고 넓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한순미 교수(조선대 자유전공학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콘서트 '책 읽는 밤'이 있다. 한 달에 한권의 책을 선정하는데 올 9월의 책은 이청준의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였다. 이 밖에도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커피·바리스타 과정', 영화 강좌 '시네필로'가 마련된다.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좌 외에도 커피홀릭을 위한 카페가 있고, 갤러리, 게스트 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자리한 <해와문화예술공간> 1층에는 갤러리 카페가 있고, 2층이 게스트 하우스다. 여행객이라면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며 전시를 볼 수 있는데 금요일 밤 7시 모레노 소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상영회에는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와의 <심리문화예술공간>는 전남대학교 후문에 있다. 🚗

* 해와문화예술공간 : 동구 의재로 109번길 32-4 T. 062-233-9011

무지개다리 아래 문화종합선물세트!

중외공원 문화벨트

이른 아침, 박물관 트랙을 산책하고 신안 해저유물을 만난 다음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공원에서 점심을, 저녁엔 공연을!
이런 고마운 문화놀이터가 여기 있었네!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들어설 때 눈에 띄는 다리가 하나 있다. 주홍색과 파란색, 흰색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다리. 하지만 특별한 것은 이 무지개다리가 아니라 무지개다리 아래로 펼쳐진 세상이다. 놀랍게도 이 다리 주변에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다. 광주국립박물관과 어린이대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까지 모두 이 무지개다리 인근에 다 모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중외공원 문화벨트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일석육조! 여섯 개의 주요 문화시설이 몰려있는 만큼 이 일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 광주의 문화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시내 방향을 향한 채로 이 무지개다리를 바라보자면 오른쪽에 넓은 호수가 보인다.

용봉제라는 저수지인데 마을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따서 저불방죽이라 부른다. 도심 속 생태습지공원인 저불방죽의 뒤편에 크고 위용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광주국립박물관이다. 1978년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신안 앞바다에서 600년 만에 인양된 무역전에서 나온 신안해저유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무지개다리의 왼쪽에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하늘빛이 투영된 미술관 유리창에 인근 산자락과 무지개다리가 보인다. 그래서인지 모던한 건물인데도 자연과 조화롭다. 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상설전시가 열리고 있다. 어린이미술관도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는다.

시립미술관을 넘어 시내 쪽으로 걸어가면 민속박물관을 품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나온다. 민속박물관 마당은 명절날이면 전통놀이마당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민속박물관으로 주변의 너른 잔디공원에는 나무숲과 나무 벤치와 휴식공간이 있다.

민속박물관을 구경하고 내려가면 비엔날레관이 나온다. 2년마다 한 번씩 비엔날레가 열리고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비엔날레전시관을 지나서 산언덕을 넘으면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형공연들이 열리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오페라나 뮤지컬이 열리는 대극장과 소극장을 갖추고 대형뮤지컬 공연, 음회, 어린이뮤지컬 등 다양한 규모와 주제를 가진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하나의 거대한 문화마을이라고 불러도 좋을 중외공원 일대 문화벨트! 이곳을 제대로 보려면 계획표가 필요할지 모른다. 아침 일찍 국립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미술관과 민속박물관, 광주비엔날레, 어린이대공원에서의 풀밭 점심, 밤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까지! 문화마을에서 보내는 하루는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

* 국립광주박물관 : 북구 하서로 110 T. 062-570-7000
광주시립미술관 : 북구 하서로 52 T. 062-613-710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북구 서하로 48-25 T. 062-613-5337~8
광주비엔날레전시관 : 북구 비엔날레로 111 T. 062-608-4114
광주문화예술회관 : 북구 북문대로 60 T. 062-613-8340



소낙비가 쏟아져도 천둥이 쳐도
여기라면 괜찮아!

터미널 문화벙커 유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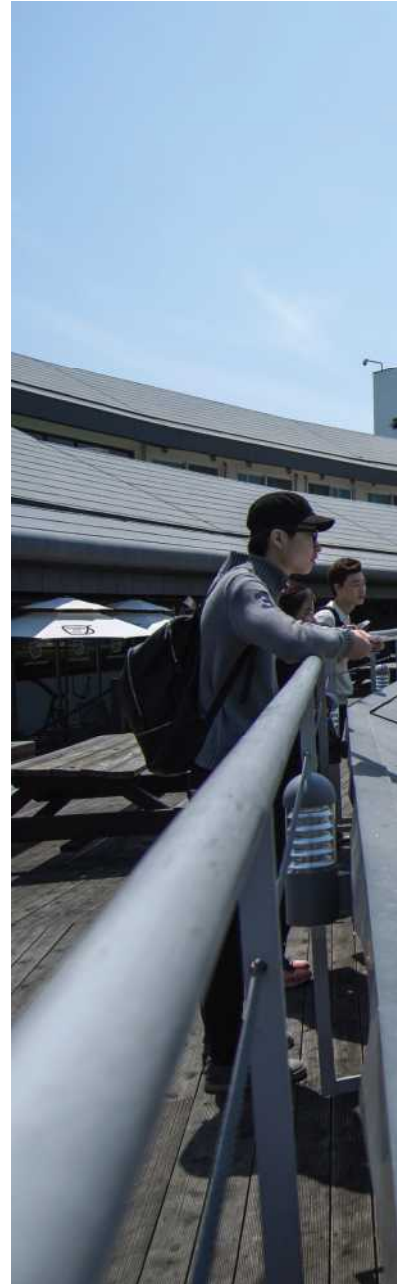
쇼핑타운과 영화관, 맛집과 전시관,
서점과 공연장, 24시 켜진방까지!
누가 이런 문화셀렉샵을 만들어냈지?

만약, 당신이 광주에 야구경기를 보러 왔다면?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이 야구경기 시작 두 세 시간 전이라면? 멀리 가자니 야구시간에 늦을 것 같고, 터미널에 죽치고 있자니 답답한 당신에게 바로 지척에 꽤 괜찮은 관광명소가 있다.

이름하여 광주 유스퀘어. 이곳은 전라도 교통의 허브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진눈깨비가 날리거나, 미세먼지가 불어대도 끄떡없는 곳. 서점에서 영화관, 전시관, 찻집과 음식점, 오락실 등 놀고먹고 구경할만한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멀티플렉스 문화공간이 바로 이곳 유스퀘어다.

매일매일 모이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의 기운 탓일까. 유스퀘어에는 언제나 활력이 넘친다. 2008년 8월에 완공된 이곳은 기존 터미널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매일매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일단 광주시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러 정보를 얻는 게 좋다.

읽고 싶던 책이 있다면 1층에 있는 대형서점에 가서 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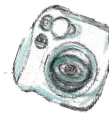


리를 잡아도 좋다. 샐러드 뷔페부터 중국요리, 돈가스 전문점, 생맥주집까지 다양한 음식점에 둘러 배를 채울 수도 있다. 배가 불러 잠시 견고 싶다면 옥상정원으로 꾸며진 유테라스를 천천히 걸어도 좋다. 음식점 쇼윈도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광주의 바람의 햇살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에 위치한 금호 갤러리는 무료전시관이다. 젊은 작가들의 기획 전시부터 다양한 전시회들이 열린다. 시간이 잘 맞는다면 영화관이나 공연장인 동산아트홀을 찾아가도 좋다. 가볍게 쇼핑을 하고 싶다면 1층 곳곳에 자리한 가게들과 유스퀘어와 연결되어있는 백화점을 둘러보아도 좋다. 여행에 지쳐 휴식이 필요하다면 24시 사우나 찜질방을 권한다. 옷가게에서 빵집, 커피집, 은행과 약국,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둘러보면 볼수록 유스퀘어는 넓다. 그래서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만끽하기도 쉽지 않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터미널에 도착할 때마다 유스퀘어를 한 챕터씩 만나기로 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

*여행 팁

유스퀘어(U Square)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광천네거리에 있는 종합 버스 터미널이다. 이전 정식 명칭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며 터미널이 소재한 광천동의 명칭을 따서 광천터미널이라고도 부른다. 터미널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2006년 8월 10일 유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당신의 광장(You), 젊음의 광장(Youth)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금호아시아그룹의 자회사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버스 운송 업체인 금호고속의 본사가 이곳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이다. 금호고속에서 분할된 터미널 운영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서 운영하며, 금호터미널도 이 터미널이 본사다. 고속버스 전산망상의 터미널 번호는 500이다.





* 유 · 스퀘어 : 서구 무진대로 904 T. 062-360-8114 홈페이지 : www.usquare.co.kr



노래로 굽는 빵은 어떤 맛일까?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바위섬' 과 '직녀에게' 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원중의 울림 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다달이 열리는 빵 굽는 공연장으로 달려가면 된다.



한 달에 한번씩 7년을 쉬지 않고 빵을 구워왔다. 가수들은 노래로 빵을 굽고 관객들은 성금으로 빵을 굽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이 공연은 가수 김원중씨가 주축이 되어 지역 예술인들이 꾸려가는 종합 공연이다. 매달 한 번씩 꼬박꼬박 공연이 이뤄진다는 뜻으로 '달거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북녘어린이 영양빵 공장사업본부는 2004년 설립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겨레하나)에서 진행하는 대북지원협력사업 중 하나였다. 북이 공장부지 및 건물, 인력을 제공하고 남이 빵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및 원재료를 지원하여 2005년 3월 8일 첫 생산을 했다. 하루 1만 개, 한 달 30만 개의 빵을 생산해 북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각 지역에

사업회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도 해외본부가 마련되어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모금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2005년 평양 대동강 변에 '북한 어린이 영양빵 공장'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한다. 뜻 좋은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것은 지역 예술인이다. 공연할 때마다 60여 명 이상의 출연진과 스태프, 예술인이 움직였으니 광주 전남 지역의 소리꾼, 화가, 작곡가들은 대부분 이 무대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장르는 다채롭다. 성악, 국악, 요들, 가요는 물론 샌드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미술인들의 멋진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함께 모여 좋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토크쇼를 열기도 한다. 좋은 뜻을 지켜나가는 이벤트적 성격이 있지만 중심은 예술을 통한 소통이다. 그래서 이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의 데뷔 무대가 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나눔 장터가 되기도 한다.

‘바위섬’과 ‘직녀에게’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원중의 울림 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다달이 열리는 뽕 굽는 공연장으로 달려가면 된다. 🚗

* 김원중의 달거리 : T. 010-3670-5802



사진제공 : 김원중의 달거리

목사님이 사회보고 스님이 노래하며 원불교 교당에서도
열리는 울도 담도 없는 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

어떤 날엔 무등산자락을 무대 삼는다.
또 어떤 날에는 천주교 성당에서도 열리고 원불교 교당에서도 열린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노란 리본이 바람에 훑날리는 슬픈 팽목항에서도 열린다.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10년이란 세월 동안 12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쳐왔다. 요란하진 않지만 언제나 정성스런 무대로, 마치 선방 텃마루 위에서 은은히 울리는 풍경소리처럼 그렇게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왔다.

그런데 왜 음악회 이름이 무등산 풍경소리일까 궁금해진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원래 광주지역의 종교인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평화와 화합을 위해 모임을 가졌는데 2002년 4월



당시 무등산 증심사 주지였던 故 일철스님의 제안으로 천주교 전영 신부, 기독교 김성룡 목사, 원불교 이용원 교무 등이 주축이 되어 생명을 나누고 환경을 지키며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한마음이 되자는 의미의 산상 음악회를 열었다.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이 시작한 작은 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는 무등산 증심사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열리다가 성탄절이면 호남동성당, 학운동성당, 고백교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열렸고, 석가탄신일이면 증심사 취백루에서 음악회 장을 펼쳤으며, YMCA공연장, 5·18기념공원, 원불교 광주교당 등을 찾아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노래와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

어지럽고 탐욕스런 세상을 살아가는 피로감 때문이었을까? 시민들은 이 작고 소박한 음악회에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연을 할 때마다 3백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북적였다. 시민들과 종교단체는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십시일반으로 공연기금을 마련해나갔다.

2011년, 풍경소리음악회가 10주년을 맞았을 때는 ‘광주에서의 10년’이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무등산 풍경소리 10년 지기들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고 무등산풍경소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특별음악회를 진도 팽목항에서 열었다.





사진제공 : 무등산 풍경소리



2014년 9월 27일에 열린 124회 공연은 국립공원 주간을 맞아 북구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촌마을 반디공원에서 펼쳐졌다. ‘가을 유정’이라는 주제로 소프라노 유형민, 피아니스트 이상록, 해화 실내악단, 충효분교 학생들이 출연을 했다. 예보에 없던 가을소나기에 음향과 조명은 엉망이 되었는데 2백여 명이 넘는 관객들은 무대의 선율에 어깨춤을 덩실거렸고 공연을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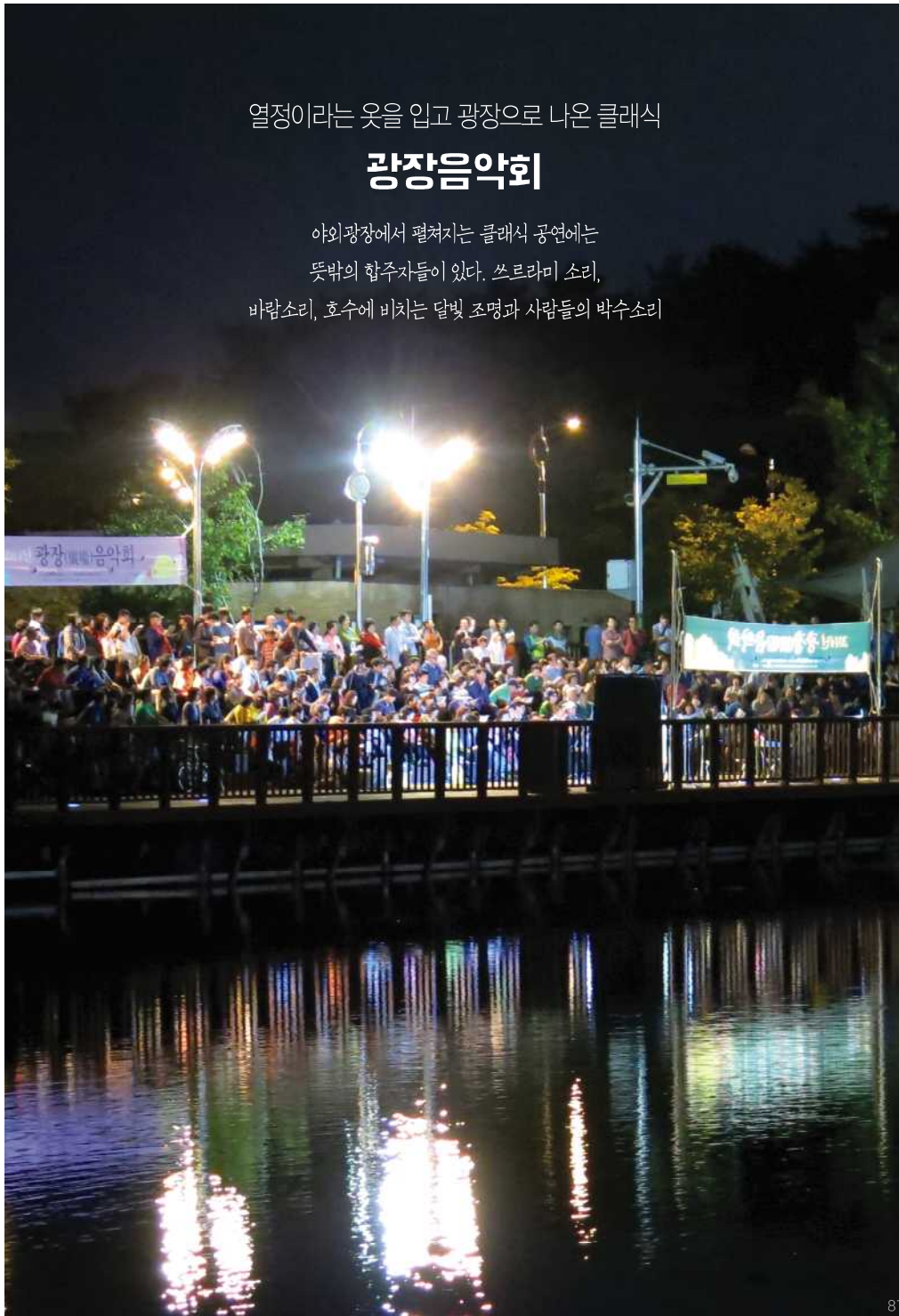
무등산 풍경소리는 올해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주최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무등산 풍경소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

* 무등산풍경소리 사무실 및 아하갤러리 : 동구 금남로 3가 15-1 T. 070-4135-0826

열정이라는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온 클래식

광장음악회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에는
뜻밖의 합주자들이 있다. 쓰르라미 소리,
바람소리, 호수에 비치는 달빛 조명과 사람들의 박수소리





파리의 여름을 찾는 이들은 탁 트인 하늘과 나무숲을 배경 삼아 공원에서 열리는 야외클래식콘서트 때문에 가슴이 설렌다고 한다. 무료로 크고 작은 클래식 콘서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8년째, 70여회에 달하는 야외클래식공연 무대가 광주에도 있다. 성악가 정찬경(바리톤)씨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광장음악회다.

지난 9월 64회째를 맞은 광장음악회는 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진월동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달은 호수에 떠있고 클래식 선율은 물결처럼 다가와 호수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클래식 무대를 빛낼 음향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대였지만 무대에 선 공연자들의 열정은 뜨거웠고, 그 열정에 답하는 시민들의 박수소리도 컸다. 공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공연자와 관객의 교감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무대였다.



시민들 누구나 클래식 매력을 느끼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악가 정찬경 씨를 비롯해 광주에서 활동하는 음악인 30여명이 시작했다는 광장음악회. 금남로 근린공원 야외음악당, 풍암 호수공원이나 진월 호수공원 등 시민들이 오기 편한 장소를 찾아가며 무대를 열었다.

한때 재정위기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주문화재단과 기업, 시민들의 후원으로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현재 ‘광장음악회’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700여 명, 후원회원이 100여 명이다.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에는 뜻밖의 합주자들도 있다. 가을을 맞아 등장한 쓰르라미 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호수에 비치는 달빛과 조명까지 완벽한 합을 이룬다. 매달 셋째 토요일 저녁이면 열정 하나에 힘입어 광장으로 나온 광장음악회의 선율이 기다린다. 🎵

* 광장음악회 : T. 062-671-8861





낭만식객,
이곳에서
길을
잃다

국밥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다.
그럴싸한 모양새는 아닐지라도
오래오래 생각나는 '케미'가 있다.
급하게 배를 채우는 한끼 메뉴가 아니라
남도의 인심과 사람내음까지 맛보게 될
내력있는 음식들 앞에서
낭만식객들, 가던 길을 잠시 잊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주면 뭐가 남지?
꽃게장 무한리필의 감동

광주 동곡마을 꽃게장 백반거리



꽃게장과 간장게장의 차이를 아시는가? 우선 색깔로 구분하자면 꽃게장은 빨간 고추장 빛깔이고 간장게장은 거무스름한 간장 빛깔이다. 맛의 차이로 말할 것 같으면 꽃게장은 매콤달콤한 양념 맛에 싱싱한 꽃게살이 씹히는 살아있는 맛이라면 간장게장은 곰삭은 간장맛에 고소한 게살이 씹히는 농익은 맛이다. 게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꽃게장과 간장게장은 우선 순위를 가리기 힘든 막강주자다.

그런데 간장게장과 꽃게장을 함께 먹어볼 수 있는 밥집이 있다면? 그것도 고등어구이, 홍어찜, 제육볶음, 조기구이, 조개젓갈, 토하젓, 석화무침, 어란, 도라지무침, 도토리묵, 계란찜 등 30여 가지에 가까운 밑반찬과 구수한 된장 꽃게탕까지 한 상에 받아볼 수 있는 밥집이 있다면?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단돈 8천원에 먹을 수 있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 곳이 있다.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선에 있는 동곡마을. 동곡파출소에서 동곡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다보면 원조 꽃게장 백반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 마을에 꽃게장 백반을 하는 집들만 20여 군데. 집집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꽃게장과 간장게장, 꽃게탕을 기본으로 생선구이와 젓갈류, 다양한 김치들과 나물 밑반찬이 10여 가지 나온다.

입이 떡 벌어지는 상차림에 한번 놀라고 싱싱한 꽃게장 맛에 다시 한 번 놀라는 것이 이곳 꽃게장마을을 찾는 이들의 반응. 매콤달콤한 꽃게장을 따뜻한 밥에 쓰윽쓰윽 비벼

먹으면 공기밥 하나가 딱딱이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마을을 둘러본다. 제각각 원조와 전통을 내세운 꽃게장 백반집이 십여 군데. 그런데 슬며시 궁금해진다. 대체 왜 바닷가 마을도 아닌 평야지대의 농촌 마을인 동곡마을이 전국에서도 소문난 꽃게장백반집이 되었을까? 사연인즉슨 다음과 같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동곡농협과 관공서들이 들어왔다. 작은 시골마을에 이렇다 할 식당이 있을 리 없었는데 이 마을에 음식솜씨 좋은 한 아주머니가 관공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밥집을 시작했다. 아주머니의 특기는 꽃게장 담그는 것이어서 밥상에는 늘 맛있는 꽃게장을 올렸다. 이 꽃게장 맛에 길들여진 이들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떠난 후에도 꽃게장 맛을 잊지 못해서 이 백반집을 찾아오곤 했고 백반 이름을 아예 꽃게장 백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딱히 수입원이 없던 마을사람들 가운데 음식 솜씨가 좋은 이들이 꽃게장 백반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색있는 꽃게장 백반집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손님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그럴수록 꽃게장 백반의 명성은 높아만 갔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마을 전체가 꽃게장 백반 집으로 바뀌었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꽃게장 백반을 맛보러 이 마을을 찾아온다. 푸짐한 상차림에 놀라고 싱싱한 꽃게장 맛에 놀라는 동곡마을 꽃게장 백반! 맛을 찾아나선 식객이라면 놓쳐선 안 된다. 🍽️

* 꽃게장거리 : 광산구 동곡로 185번길 15-10





할머니들이 차려주시는 소박하고 푸짐한 만찬

지산동 보리밥거리

무생채, 버섯나물, 취나물,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무침, 부추겉절이, 참나물, 배추속나물, 호박고지나물, 토란나물, 죽순나물, 열핏 눈짐작으로도 나물반찬이 십여가지는 족히 넘는다. 거기에 된장, 고추장, 멸치젓갈, 된장국, 싱싱한 쌈 채소가 곁들여진다. 밥상마다 놓인 박카스 병에는 고소한 참기름이 담겨있다. 보리밥은 큰 국수 그릇에 담아 나온다. 갖가지 나물들을 보리밥 그릇에 담고 고추장, 참기름까지 곁들여 보리밥 비빔밥을 해먹는 손님들이 많아서다.

동그란 양은쟁반에 이 많은 나물반찬과 밥을 날라다주는 이들은 이 골목 어느 집들이나

대부분 허리가 굽거나 주름고랑이 깊은 할머니들이다. 쉬어가는 보리밥집, 온천할머니 보리밥집 등 무등산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산동 보리밥거리 밥집들의 역사가 수십 년을 넘었으니 중년 무렵 보리밥 장사에 나섰던 아낙들이 할머니가 된 것은 당연지사다.

무등산 입구 보리밥집들에 비해 지산동 보리밥거리의 밥집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소박하다. 보리밥을 팔아서 큰돈을 벌지는 못하셨던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은 집들도 눈에 띄지가 않는다.

주변에 카페가 들어서고 레스토랑이나 음식점들이 더 들어서긴 했지만 플라스틱 접시에 가득가득 담긴 나물들과 동그란 양은쟁반이 넘치도록 날라다주는 이 보리밥맛의 역사와 추억을 따를 수는 없다. 낡고 커다란 국수그릇에 담긴 보리밥에 갇은 나물들을 한데 넣고 비벼 입이 터지도록 찜을 싸먹고 냇을 때의 그 기분 좋은 배부름을 그 어떤 메뉴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

* 지산동 보리밥거리 : 동구 지산동 일대





순대며 곱창, 김밥과 국수를 곁들여 파는 양동시장 국밥집 가운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들러서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갔다는 국밥집이 유명하다.



따뜻고 진하고 구수하다!

새벽에 맛보는 양동시장 국밥



장의 역사만 자그마치 100여년, 호남권에서 제일 큰 시장이 양동시장이다. 도시가 모두 잠들어있는 새벽 1시면 양동시장 어물전과 채소전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새벽도 아닌 한밤중에 장을 보러 오는 이들은 인근 남광주시장, 무등시장의 상인들과 큰 식당을 운영하는 큰 손들. 컴컴한 도로변에 트럭들이 서고 온갖 야채와 해산물들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밤도 잊은 채 거래가 시작된다.

이렇게 밤중부터 장이 서는 까닭에 양동시장에는 새벽 먹거리들이 있다. 리어카에 온수통을 매달고 다니는 이동식 다방 커피는 기본이요, 간단히 속을 채워줄 깨죽도 리어카로 배달한다. 하지만 고된 일 끝에 가장 든든한 것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돼지 뼈를 푹 고아 삶은 내장을 듬뿍 썰어 넣거나 선지로 끓여낸 국밥 한 그릇이야말로 추위는 물론이요 피로까지 달래주는 새벽 보신 음식 중에 최고!

야구경기를 보러 광주에 들렀거나 업무 때문에 광주에 들렀다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한다면 편의점 김밥으로 대충 요기를 하기 보다는 양동시장 새벽 국밥 맛을 보는 게 어떨까? 조금 부지런을 떨면 홍어시장이며, 야채장이며 남도의 물산들이 장에 등장하는 드라마틱한 광경들까지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의 전성기만큼 왕성한 건 아니다 해도 그래도 호남 제일의 시장, 양동시장이다. 대체 이 많은 홍어들, 이 많은 생선들, 이 많은 야채들은 어디서 나서 누가 다 소비할까 싶어 입이 절로 벌어진다.

순대며 곱창, 김밥과 국수를 곁들여 파는 양동시장 국밥집 가운데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들러서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갔다는 노무현대통령이 드시고 간 국밥집이 유명하다. 🍲

* 양동시장 국밥거리 : 서구 천변좌로 238 양동시장 내

떡갈비는 원래 궁중 음식이었다고 한다. 지체 높으신 분들이 갈빗대를 쥐고 뜯어 드시게 할 수 없으니 갈빗살을 일일이 발라서 다진 다음 상에 올린 것이 유래였다. 이런 궁중식 갈비를



맛본 고위층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떡갈비를 원한 것이 담양 떡갈비나 경기도 떡갈비의 기원이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송정리 떡갈비는 인근 담양 떡갈비와는 분위기며 가격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서민적이고 푸짐하고 가격도 착하다고나 할까. 우선 떡갈비를 주문하면 뼈를 고아낸 뜨끈한 갈비탕은 서비스로 나오고 양도 푸짐해서 배불러 먹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 말이다. 이유인즉슨 송정떡갈비는 그 출발부터가 달랐기 때문이다. 6·25 직전, 송정리 5일장에서 친정엄마와 밥집을 하던 할머니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은 이가 성하지 않은 시댁 어른들을 잡숫게 하기 위해 소고기를 잘게 다지고 야채와 양념을 더해 구워서 대접을 했다. 시댁 어르신들의 극찬에 할머니는 송정장 밥집에도 다진 갈비 메뉴를 내놓았다. 떡갈비 맛을 본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할머니네 갈비집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하나 둘 식당을 차렸다. 세월이 흘러 이 골목은 떡갈비 골목이 되었고 예나 지금이나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가격이 착한 송정리 떡갈비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부터 소고기만으로는 가격을 맞추내기 힘들어 돼지고기를 섞어 쪄낸다. 돼지고기 특유의 부드러운 맛은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다. 숯불에 잘 구워진 송정떡갈비를 쌈 채소에 싸먹거나 초절임 무에 싸서 먹으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떡갈비 집마다 파는 비빔밥도 별미다. 🍽️

* 송정떡갈비 골목 :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광산구청 일대



중국 본토의 양꼬치구이를 맛보는
광주 속 중국

외국인음식점거리

주문을 받아주는 주인장부터 앉아서 요리를 먹는 손님들까지 죄다 중국 사람들이다. 양꼬치구이에 갖가지 중국요리들, 칭다오맥주까지! 앉아서 숯불에 양꼬치구이를 돌려 굽고 있자면 진짜 중국 어느 지방 대학가 술집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광주에 유학한 중국학생들이 고향 생각날 때면 찾는다는 맛 집. 광주 송정에 자리한 중국 정통 음식점이다.

자리에 앉아 직접 숯불에 구워먹는 양꼬치구이가 대표메뉴이긴 하지만 다양하고 저렴한 중국 본토음식들을 다 맛볼 수 있다. 한국식 중화 요리 집에는 없는 다양한 중국 본토



음식들. 가격도 착하고 맛도 그만이다. 그래서 중국유학생들 사이사이에 한국사람, 베트남 사람 등 동남아 단골 손님들이 앉아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일단 맛에 중독되면 다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송정리 중국음식점이다.

양꼬치, 양갈비, 고추잡채, 중국식 탕수육, 메추리튀김, 메추리구이, 마파두부, 홍소육, 달걀 고기볶음, 1만원 전후의 요리들이 매뉴판에 가득하다. 값도 착한데다 가게들도 소박해서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이색적인 중국음식 맛보기에 부담 없고 편하다. 🍽️

* 외국인음식점거리 : 광산구 송정동 일대



카메라 챙겨두고 이 거리로 소풍 가자!

광주의 가로수길, 일곡음식문화거리



주택가를 둘러보면 마치 서울의 평창동처럼 건축물 전시관을 보는듯하다.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들어선 거리를 걷다보면 신사동 가로수길이 연상된다. 그래서 카페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광주의 가로수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광주 북구 일곡동 음식문화의 거리다. 언제부터 이 동네가 이렇게 됐냐고 물어도 정답은 없다. 이곳이 일곡동 자연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어울릴 만큼 광주의 외곽지역이었기에 마당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개성 있는 집을 지었고, 마을 분위기가 바뀌다보니 어울리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일시에 택지개발로 이뤄진 00지구라는 이름의 거리들과는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이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일신 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시작되는 음식점과 카페들은 광주에서 가장 개성적일 뿐 아니라 규모도 있다.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 중국음식, 한식, 스테이크 전문점, 커피전문점. 집집마다 개성 있는 음식들로 단골들을 확보하고 있다.

취향에 맞게 음식점을 골라서 식사를 하고나면 주변 산자락을 따라서 쉬엄쉬엄 이야 기꽃을 피우며, 일곡 두레길을 걸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미술품 비엔날레를 지나니 맛의 비엔날레가 펼쳐진다

용봉지구 맛집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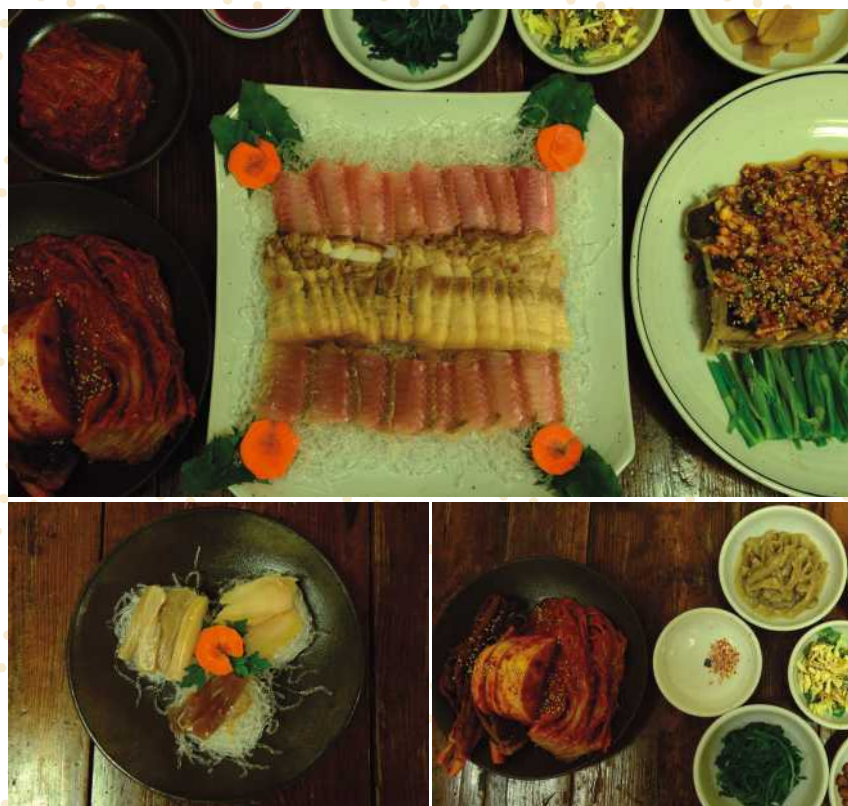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 정문에서부터 용봉동 패션의 거리 사이에는 용봉지구라는 이름의 거대한 택지가 있다. 아파트와 주택가들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크고 작은 음식점과 술집, 카페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은 '용봉지구 먹자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고깃집부터 횡집, 해물탕집, 국밥집, 찰국수집, 곰창구이집, 생맥주집, 조개구이집, 전집, 생선찌개집, 추어탕집, 칼국수집,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포장마차와 24시 해장국집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다.

인근에 전남대학교가 있고,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도 멀지 않아 용봉지구 먹자촌을 찾는 이들은 젊은 층이 많다.

골목 구석구석에 숨은 맛집들이 많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맛 탐험에 나서도 좋은 곳이다. 고즈넉한 음식점들이라기보다는 택지개발지구 특유의 유흥가다운 흥과 술렁거림이 살아있는 곳이다. 🍷





용봉지구 먹자촌이
형성될 초창기에 자리를 잡은
가보세 열씨구학당의 굴전과 싹밥,
생선조림은 동동주와 잘 어울린다.
단골이 많은 홍어전문점 홍어집가세의
홍어사시미와 찜도 강추한다.





이탈리아 커피의 자존심 엔리코메스끼니가 인정한
아시아 유일의 원두회사
케냐 에스프레소



대구경북 지역엔 '다빈치 커피', 부산 경남엔 '도피 오 커피'가 있다면 광주 전남에는 '케냐 에스프레소'가 있다. 골리앗 같은 거대 커피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다윗처럼 살아남은 지역브랜드 커피들이 종종 있는데 광주지역에서는 케냐 에스프레소가 그 원조라 할 수 있다.

지금이야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들어왔고 개인이 운영하는 로스터리 카페들도 생겨났지만 케냐 에스프레소가 충장로에 1호점을 낼 당시만 해도 광주의 커피는 다방 중심 혹은 집에서 타먹는 믹스커피가 대부분이었다. 케냐에스프레소는 그런 이 지역에 원두커피의 향과 맛을 제대로 알리면서 커피 전문인인 바리스타 교육도 시작을 했다. 여러

모로 광주사람들의 커피 입맛을 높여놓은 공로가 케냐 에스프레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 구석구석에 자리한 케냐 에스프레소 매장들은 주황색 벽돌과 초콜릿 빛깔 어닝으로 눈에 띈다. 신선하고 건강한 원두를 생활 가까이에서 공급하겠다는 전략으로 동네를 파고든 케냐 에스프레소는 아무리 작은 매장이라도 전문 바리스타가 파견되어 커피를 내려주는 전문점이다.



케냐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원두다. 케냐 매장에 가면 곳곳에 커피로 디자인한 魂(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커피매장에 소울까페(Soul Caffé)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원두에 대한 자긍심 때문이다.

CSC 공인테스터들의 검증된 스페셜티 생두를 사용해, 다양한 로스팅과 블렌딩을 해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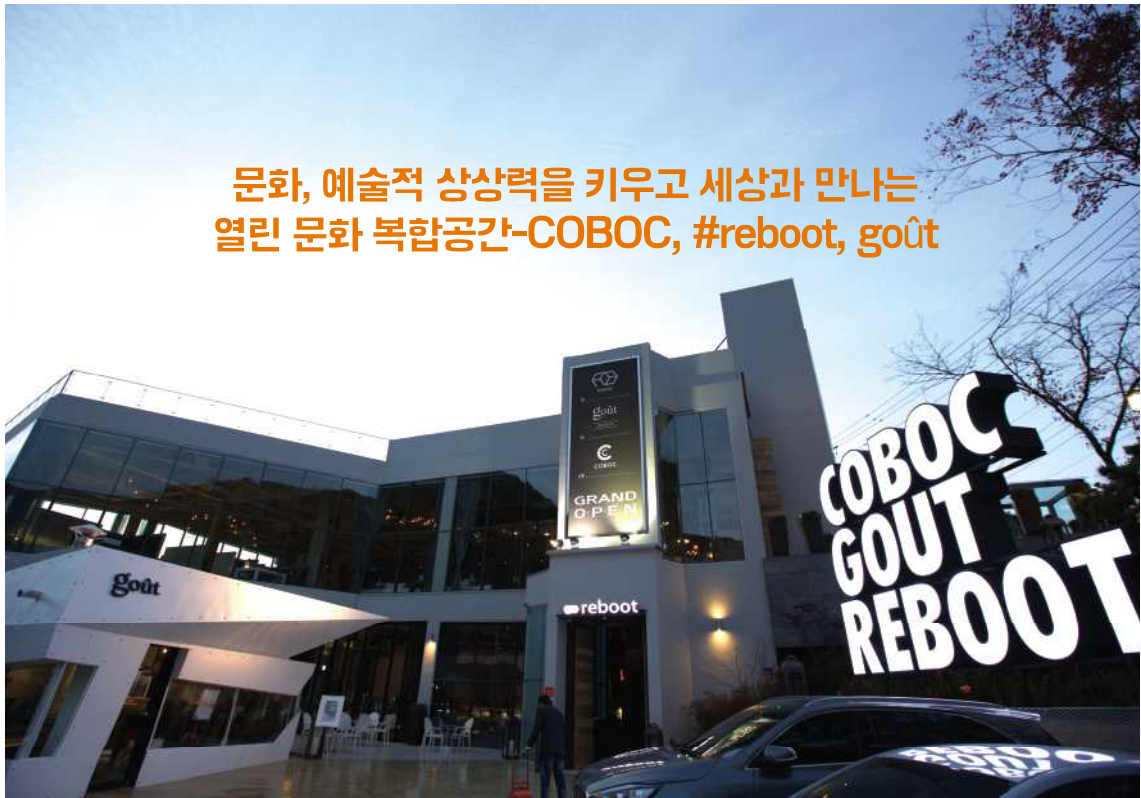


로써 이탈리아 정통 커피의 품미와 열정을 만끽하게 한다는 것!

커피의 본고장 이탈리아 커피단체(CSC)회장 엔리코 메스끼니와 제휴를 맺고 공급받는 원두라는 설명이다. ☕

* 케냐 에스프레소 : 북구 송해로 38 T. 062-573-0410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키우고 세상과 만나는
열린 문화 복합공간-COBOC, #reboot, goût



광주 · 전남 사람들에게겐 ‘커피북’이 익숙하게 다가오는 단어이다. 지역 토종 브랜드인 ‘커피북는집’의 애칭이 바로 ‘커피북’이다.

광주 · 전남 지역에 30여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북는집’을 처음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30대 중반의 여성 CEO 이영숙씨.

스물여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커피 맛과 향에 매료되어 시작한 커피전문점이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뒤지지 않는 지역의 커피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커피북는집’은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나가는 꿈의 이름이자 가능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영숙 대표가 지역 대학이나 문화 공간에서 자신이 걸어온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인만큼 지역민들에게 커피의 향기와 더불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그녀는 ‘예향’의 고장 광주의 예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침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도서관 앞 직영점 지하 1층에 ‘스페이



스영'이라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 나눔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더 좋은 환경과 더 넓은 공간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광주 지산동 무등산 자락에 프리미엄 라운지 공간을 마련하여 오픈하게 되었다.

1층에는 문화 예술 공연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라운지 클럽 “#reboot”와 자연 경관 속에서 여유롭게 힐링 할 수 있는 전통 나폴리 피자리아 “goût”로, 2층은 예술작품의 전시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고품격의 갤러리를 겸한 커피브랜드 “COBOC”으로 운영하면서, 일괄된 전시 공간 및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이곳은, 작가들에게는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자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예향의 도시 중심에 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예술 작가들과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계획이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COBOC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늘 생기가 넘치는 곳이다. 지상 2층 규모로 비정형 형태의 건축물로 독특한 모습을 띤다. 건물 외관의 유리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선사하기도 한다. 무등산의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고 1층의 수영장과 라운지는 푸켓의 휴양지를 연상케 하기도 하며, 저녁때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오가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키기에 더 할 나위 없다.

갤러리를 비롯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연주가 이루어지는 공연장, 아가사기한 소품이 가득한 이곳은 지루할 틈이 없는 열린 문화 복합공간이다. 🍷

* COBOC, #reboot, go!t : 동구 지산동 지호로 67-5번지 T. 1800-9820, 062-223-5947





광주의 리얼 빈티지

저기 낡은 벽돌과 갈라진 시멘트는
어디선가 날아온 풀씨와 이끼의 집이 되고
빛바래고 삭아진 저 플라스틱마저
은은한 색감으로 깊어지고 있다

해와 달의 손길로 닦아지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쓸어내려준
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깊어진 것들은

(중략)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 박노해 씨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중

역사와 예술의 무게가 깊이 다가온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신처 양림동 최승호가옥과 최인준미술관

집이 지닌 내력 때문일까.

집에 쏟았던 주인들의 각별한 마음 때문일까.

사람살이와 역사와 예술의 무게와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정면 8칸 측면 4칸,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기와를 유약을 바른 적색기와다. 전통 한옥이 개화기 한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축사의 소중한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집을 ‘독립운동가들이 드나들었던 양림동 최부잣집’으로 기억한다. 일제강점기 이 가옥의 지붕 밑 다락으로 일경에 쫓기던 독립운동가들이 숨어들었다는 영화같은 이야기를 이 집은 간직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최상현씨의 집은 광주문화방송을 창립한 최승효씨가 1968년에 사들였다. 이후 최승효씨의 삼남이며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작가 최인준씨가 집을 손보기 시작한 것이 12년 전이다.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2호.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고택은 그 자체로서도 작품이지만 방방과 벽면들이 조화로운 갤러리로 거듭 났다. 최인준 작가가 십 여년 동안 작업한 작품들이 고택과 잘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당호로 쓰인 편액은 길상여의(吉相如意). 좋은 일을 생각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정중앙에는 자이당(自怡堂)이라는 편액이 보인다. 스스로 기쁨을 짓는 집이라는 의미다.



안방과 가옥 주변엔 최인준화백의 설치 작품이 배치되어있다. 집이 지닌 내력 때문일까. 집에 쏟았던 주인들의 각별한 마음 때문일까. 사람살이와 역사와 예술의 무게와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오래된 이 고택을 천천히 들어보는 동안. 🗨️

* 최승효가옥 : 남구 양촌길 29-4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2호.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고택은
그 자체로서도 작품이지만 방방과 벽면들이 조화로운 갤러리로 거듭 났다.

누룩달인이 만들어내는 빛이 나는 누룩, 소율곡(素燭麴)

송학곡자

좋은 누룩은 시간을 느끼고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급한 마음으로도 욕심으로도 안 된다.
편리와 속도가 지배하는 지금, 누룩의 향기는 그 자체로 감동이다.



맥주, 위스키 같은 서양의 곡주와 일본 술 사케, 우리의 곡주인 막걸리는 확연한 맛의 차이가 있다. 서양의 술은 엿기름인 맥아를 만들어 곡물을 삭힌 후 발효시키고 일본 술은 코지라는 단일균으로 이뤄진 홉임누룩을 쓴다. 반면 우리 막걸리는 살균하지 않은 자연발효 누룩을 이용한다. 때문에 누룩 맛에 따라 술맛이 다양하게 분화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특색 있는 가양주를 빚던 시절에는 누룩 만드는 비법이 집집마다 있었다. 온도와 시간, 몇 번 반복해 발효를 시키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양지차였다. 가양주가 사라진 대신 공장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래도 막걸리 맛을 아는 이들은 생막걸리를 최고로 친다. 하지만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생막걸리의 유통상 한계 때문에 지역별 공장막걸리에는 그 지역색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막걸리 공장들에서 쓰이는 누룩들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낼까? 현재 전통누룩을 만드는 곳은 국내에 단 두 곳.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 곡자와 광주 광산에 있는 송학곡자다.





5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온 송학곡자(정성문 대표)는 하루에만 누룩 2톤을 만들어낸다. 누룩발효에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연탄불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누룩공장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가양주를 담가 먹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적으로 누룩을 사러오는 이들도 꽤 많다고 한다. 가양주 만드는 모임이나 전통주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학생들도 견학을 온다.

직접 술을 담가먹는 막걸리 마니아들을 위해 송학곡자에서는 소량으로도 누룩을 판매한다. 송학곡자에서 만들어내는 누룩은 소율곡(素燭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빛이 나는 누룩이라는 뜻. 술 고프다고 술만 찾을 일이 아니라 한번쯤은 술 맛의 비밀을 품은 이곳 송학누룩공장에 들러 깊고 오랜 누룩 향을 맞아 보아도 좋다. 🍷

* 광산구 삼거동 250-3 T. 062-941-1387





뼈대 있는 광주 막걸리의 품미

막걸리는 농주라고 불렸다. 함께 두레나 품앗이로 농사일을 하다가 목도 축이고 배고픔도 달래던 걸쭉한 술. 농토가 많고 농약이 발달했던 광주의 농주 맛은 예로부터 소문이 자자하다. 그 가운데서도 무등산자락 청풍막걸리와 송정 금천주조장 쌀 막걸리, 서부주조장의 어등산 막걸리를 소개한다.



송정금천주조장 '쌀막걸리'

일제강점기부터 그 역사가 시작던 금천주조장은 송정리 막걸리의 터줏대감이다. 원래 자리에서 지금 자리로 길 건너 이사를 한번 한 것을 빼고는 이곳 송정리 입구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유서 깊은 역사를 함께 한 만큼 8·15해방과 6·25전쟁, 5·18광주민중항쟁 등 고달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의 시름을 달려주었다.

한 때는 술 빛는 직원이 10여명이 넘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세 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송정 시가지에 있는 가게에서 맛볼 수 있고 주문만 하면 광산구 어느 지역이든 배달이 가능하다.

* 광산구 내상로 33번길 42 T. 062-944-0018





청풍주조장 '무돌 생 저잣거리 맑은술'

무등산을 한 바퀴 도는 무돌길 제1구간 싸리길을 따라서 들산재 정상에 오르면 우측에 군왕봉이 솟아 있고, 신촌·등촌마을 청풍동이 발아래 보인다. 무등산 정상 세 개의 봉우리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앞에 중봉, 원효봉, 등 준령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청풍고을이라 했던가! 이 산수 좋은 곳에 전통막걸리 주조장이 있다. 남평문씨 집성촌으로 청풍마을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문형곤 청풍막걸리 주조장 주인장. 문형곤대표가 청풍마을에서 영농회장을 할 때 마을에 특별한 소득원을 찾던 중 2008년부터 마을에서 조상대대로 빚어서 먹던 전통막걸리를 상품화하기로 마음먹고 농진청에서 술 제조 기술을 공부했다.

값싼 수입쌀이나 묵은 쌀 대신 지역에서 나오는 찰쌀과 쌀로 고두밥을 지어 밑술과 섞어 숙성 한다. 물은 반드시 청풍암반수를 쓴다. 그래서 무돌 생 저잣거리 맑은술은 생산된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 맛이 변함이 없다. 군왕봉 등산객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곳을 들르는 이유다.

* 북구 신촌셋강길 120-5 T. 062-266-6086



서부주조장 '어등산 막걸리'

서부주조장은 1960년대 나주 동강의 소문난 주조장이 70년대 지금의 송정매일시장 주차장 자리로 옮기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누룩을 만들어서 띄우는 일, 쌀을 씻고 찌고, 누룩과 쌀을 버무려 밀술을 빚는 일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세월이 흘렀다고는 해도 서부 주조장에서 술 빚는 풍경은 정성어린 마음 아니고는 이뤄질 수 없는 공정을 거친다. 커다란 가마솥에 씻은 쌀을 넣고 150도에서 200도 사이의 고온으로 1시간을 찌낸 다음 넓은 돛자리에 부어 식힌다. 식힌 술밥은 편백나무향이 배인 곡자실로 가져가 효모액과 섞어 사흘 동안 배양을 한다. 이를 다시 5일 동안 발효시키는 2차 배양을 하고, 다시 사나흘 간 3차 배양을 한 다음 술밥을 찌서 술을 빚는다. 이후로도 두어 차례 발효와 재생을 거쳐야 술을 거를 수 있다. 지금도 하루에 막걸리 8백병을 생산한다.

* 광산구 내상로 33번길 14 T. 062-944-5556



바람아 불어라! 내 마음을 담아 연 한번 날려보자!

남도민속연제작소

바람이 없으면 연을 날릴 수 없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 가뿐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연이 되려면

연도 바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가뿐히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연을 만들고, 손과 바람 사이를 건디는 팽팽한 줄을 잇는 작업에 평생을 바쳐온 이가 있다. 35년째 전통 연을 만들어온 남도민속연 제작소의 홍포 김정옥(64)장인이다.

남도민속연(鸞)제작소에는 직접 제작한 공구들과 연과 일레를 만드는 재료, 연실에 풀 먹이는 물레들이 있다. 소리꾼들의 고수로도 활동했던 부친으로부터 전통 연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전통 연을 만든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해방이 되고 부친과 함께 참가했던 백상제 전국연날리기 대회는 감격이었다. 수백 개의 전통연과 창작연이 하늘을 수놓으며 나르는 장관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장인이 주로 만드는 방구명방패연은 중앙에 둥근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연으로 우





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연이다. 연에는 분죽 뗏살을 3~4년생을 쓰고 몸체종이는 닥나무로 만든 한지를 사용하는데 색상은 오방색을 주로 쓰고, 그 위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

연은 삼국사기에도 그 기록이 나온다. 역사 속에 사라진 전통연들을 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른다섯가지 복원연 중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해전통신용으로 활용했던 연도 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영산강문화관 승촌보에 오면 전통연 체험을 할 수 있다. 🍷

* 남도민속연창작소 : 남구 포충로 937번지 빛고을공예창작촌 106호
T. 010-3629-3796



아직도 낫이나 호미 만드는 대장간이 있어?

송정5일장 대장간



1913년, 이 지역에 첫 기차역인 송정리역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장이 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겨난 시장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어김없이 닷새마다 장이 선다. 송정 5일장이다. 세월이 흘렀으니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가고 송정 5일장을 찾는 이들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큰 우시장이 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야채와 과일, 그리고 곡류 등이 장에 나오는 단골 물건이다.

상설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일과 8일로 끝나는 장날이면 시장 입구 골목부터 좌판들이 들어차서 도로가 복잡해진다. 어느 재래시장과 다를 것은 없어 보이는 송정시장의 명물이 하나 있다. 교과서나 영화에서나 보았던 대장간이 아직 이곳에 있다. 올해 일흔 넷 최춘식 어르신이 운영하는 신광철공소다.

광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장간, 어쩌면 전국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추억의 이름이 바로 대장간일 터. 열서너 살 소년 시절부터 대장장이 일을 배웠다는 최춘식 어르신은 50년이 넘도록 갈탄을 달궈 낫과 칼을 만들어낸다. 최신 농기계들이 보급되고 중국에서 값싼 농기구들이 들어와서 수요가 예전같지는 않지만 손으로 직접 두드려 만든 최씨 아저씨의 농기구만을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다.

한번 사간 농기구를 다시 고치러오는 이들도 많다. 고장난 연장을 고쳐주고, 언제 사갈지 모르는 농기구를 만드는 이 일을 장남 종호씨가 이어받기로 했다. 큰 별이가 되지 않는 고단한 길을 묵묵히 가는 풍경이 대장간 불빛처럼 아늑하다. 🍷

* 신광철공소 : 광산구 송정동 송정시장 내





진짜 득템할 거리들은 여기 다 있었구나!

**호남권 시장들의 큰 형님,
양동시장**



카메라를 들이대면 시장 풍경들은 그대로
그림이 된다. 밀레의 이삭줍기같은 풍경
들이 사방에 펼쳐진다.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흥정에 몰입하는 모습, 자기 일에 빠
친 모습,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생활
들이 시장에 있다. 양동시장의 풍경은 장
풍경 가운데 으뜸이다. 양동시장이야말로
호남권 시장들의 만형 격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치킨의 원조격인 닭전머리 양동통닭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다. 제사상에 놓은
굴비며, 살림 밑천인 김장재료며, 진짜 살림꾼들은 양동시장이 아니고는 살림이 안된다고
들 한다. 🍷

* 양동시장 : 서구 천변좌로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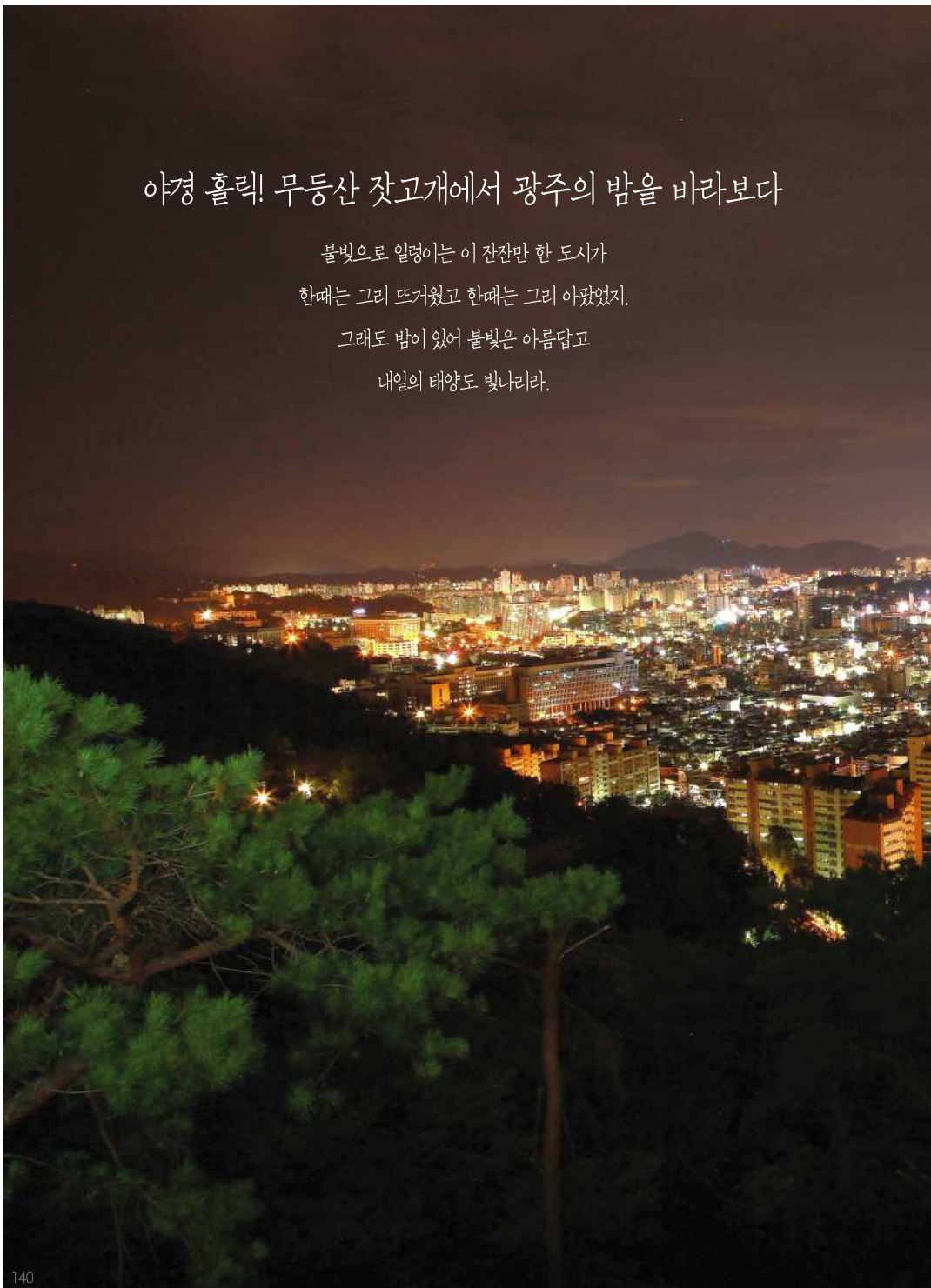
아무 것도 아닌 풍경들의 절절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아
옷에서 떨어진 단추라도 괜찮고
아파트 풀밭에 피어난 도라지라도 괜찮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의 힘을 알아

* 신현림 시 아무것도 아니었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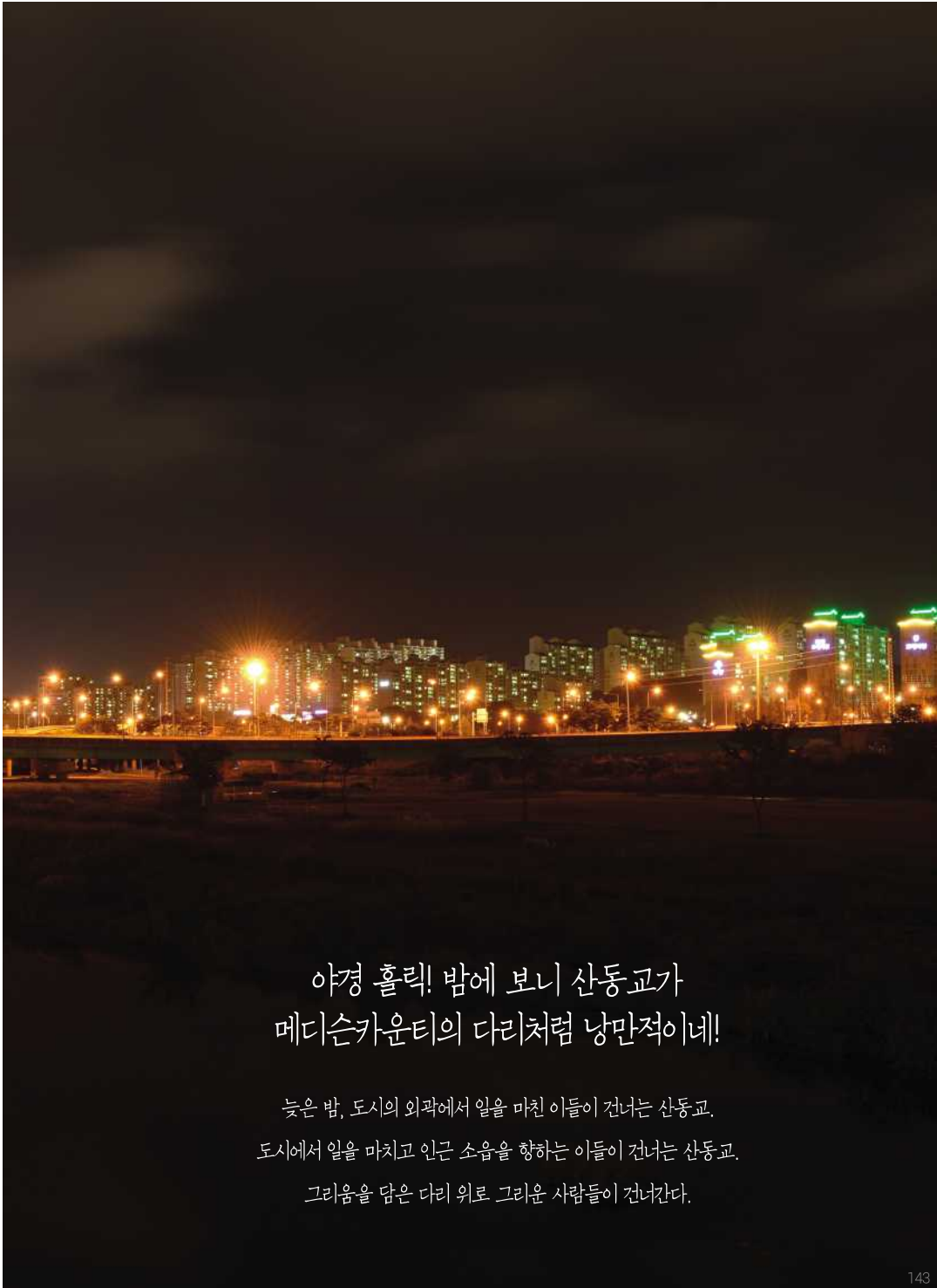
야경 홀릭! 무등산 잣고개에서 광주의 밤을 바라보다

불빛으로 일렁이는 이 잔잔한 한 도시가
한때는 그리 뜨거웠고 한때는 그리 아팠었지.
그래도 밤이 있어 불빛은 아름답고
내일의 태양도 빛나리라.









야경 홀릭! 밤에 보니 산동교가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처럼 낭만적이네!

늦은 밤, 도시의 외곽에서 일을 마친 이들이 건너는 산동교.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인근 소읍을 향하는 이들이 건너는 산동교.
그리움을 담은 다리 위로 그리운 사람들이 건너간다.

야경 홀릭! 원당마루에서 수완의 밤을 바라보다!

언젠가부터 아파트단지는 도시의 숲이 되었다
현대판 동굴에서 쏟아져나오는 저 불빛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밝힌 불빛이기 때문이다.





무등산이라는 풍경화 아래
미술관들이 모였네

운림동 미술관 거리



광주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은 계절에 따라
마음의 풍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빛깔의 그림이 되
는 무등산이라는 풍경화일 것이다. 그런데 이 거대
하고 아름다운 풍경화 그늘 아래로 미술관들이 그
림처럼 등지를 틀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제2의
예술의 거리, 혹은 운림동 아트밸리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무등산자락 미술관 길은 중심사로 향하는 소태동 입구의 배고픈 다리를 지나면서부
터 시작된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의 국윤미술관이 그 시작이고, 정송규 작가
가 건립한 노출 콘크리트 구조의 자연친화적 건물인 무등현대미술관, 아담한 조각공
원과 갤러리를 갖춘 우재길 미술관이 있다.





무등산을 향해 더 걸어 올라가면 크고 작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와 카페들이 눈에 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이 웅장하고 단아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통문화관을 넘어 산 아래로 가까워지면 의재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말 그대로 무등산을 향해가는 길목 자체가 하나의 '예술촌'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무등현대미술관은 정송규 작가가 운영하는 전시갤러리이자



문화공간이다. 지역민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와 기획전시가 일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

2008년에 문을 연 국윤미술관은 매주 토요일 시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열린예술체험활동인 토닥토닥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2층 전시실은 국중효 조각가와 윤영월(관장)작품이 전시되어있고, 기타 중견작가의 작품들도 상설 전시된다.

빛의 작가 우제길 화백의 갤러리는 미술관 자체가 설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미술관 주변 공원은 무등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광주현대미술의 기조였던 추상미술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전시하고 있으며 청년작가 지원과 국제관화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

* 무등현대미술관 : 동구 증심사길 9 T. 062-223-6676
 국윤미술관 : 동구 의재로 82 T. 062-232-7335
 우제길미술관 : 동구 의재로 140-6 T. 062-224-6601
 의재미술관 : 동구 증심사길 155 T. 062-222-3040

도시에 둘러진 아름다운 녹색띠

광주 푸른길

지금은 옛 추억 속으로 사라진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주월동과 양림동, 지산동, 계림동에 이르기까지.
칙칙폭폭 기차길은 이제 산책로가 되었다.
하루의 시작을 이 길에서 하는 이들,
하루의 마감을 하는 이들.
푸른 길은 일상에 쉼표로, 느낌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다.

길이만 8.08km, 경전선 철도가 달리던 폐선 부지가 도심의 산책로로 거듭났다. 2002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꾼 끝에 탄생한 푸른길 공원. 버려졌던 폐선부지는 이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이자 명상의 길이 되었다.

푸른길 곳곳에서는 계절마다 음악회가 열리고 나눔장터가 열리기도 한다. 동네를 지나는 푸른길은 마을 주민들의 아침운동장이 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명동, 지산동 등 푸른길 공원 주변에 갤러리와 카페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회색 도심에 녹색띠가 둘러지자 그 숲 그늘 자락으로 사람이 모여 들고 문화가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



* 푸른길

2006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푸른길 공원은 1930년에 건설된 광주~여수간 경전선 철도의 일부구간이 이설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폐선부지에 푸른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높아감에 따라 푸른길공원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폐선부지 전 구간의 조성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 과정에 주민대표,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하는 푸른길 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공원을 만들었다.

푸른길방문자센터 : 동구 제봉로 17번길 7-9 T. 062-514-2444~5

그 공원을 걷다보니 시집이 한 권
광주공원, 사직공원 시비길

나무 숲 아래로 걸다가 시를 읽고
시를 읽으며 다시 걸어가는 공원길 문학산책



광주의 중심을 흐르는 광주천변에는 두 개의 큰 공원이 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이다. 두 공원은 그리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마음을 먹으면 산책 삼아 걸어가갈 수 있다. 그런데 도심 속 공원을 거닐다 눈이 띄는 비석들이 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시인들이 남긴 시가 공원 여기저기 바윗돌에 아로새겨져있다. 용아 박용철과 영랑 김윤식의 시가 나란히 적힌 시비. 조지훈 시인이 쓴 4·19학생운동의 헌시, 이수복 시인의 봄비, 백호 임제와 하서 김인후, 면앙정 송순, 눌재 박상, 고산 윤선도의 시비, 충장공 김덕령과 충무공 이순신, 금남공 정충신의 시비. 박봉우, 김현승, 이동주 시인의 시비들이 그것이다.

걸음을 걷다 멈춰 서서 공원의 시비들을 다 읽다보면 시를 통해 긴 역사를 통과한 듯 가슴이 벅차오른다. 🌿



봄비

- 이수복

이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잎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 길
맑은 하늘에
중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겠다.

이비 그치면
시새워 벵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시인들을 길러낸 시인의 학교

광주고등학교 문학관

이성부, 문순태, 정현웅, 조태일, 박봉우 등
감성충만한 문학청년들이 공부했던 학교





꽃대가 높지 않고 키가 크지 않아도
자존심이 강한 산이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냥 밋밋하게 뻗어있는 능선이,
너무 넉넉한 팔로 광주를 그 품에 안고 있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느냐.

- 이성부의 詩 무등산 중에서

시인의 학교로 불리는 학교가 있다. 광주지역 4,19혁명의 발상지이자 개교 이후 60여명이 넘는 문인들을 배출해낸 광주고등학교다. 시, 소설, 수필 등 누구나 알만한 시인 이성부, 정현웅, 박성룡, 조태일, 박봉우, 민용태, 김형수, 차창룡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9회 동문인 소설가 문순태 소설가는 '광주 동문들 중 시인이 28명, 시조 2명, 소설 7명, 수필 16명, 희곡 1명, 평론 6명, 아동문학 2명으로 시인이 가장 많았다면서 반세기 동안의 광고문학 발자취를 태동기, 개화기, 휴면기로 구분했다.

광고문학관은 120평 규모의 공간에 한국문학 창달에 기여한 문인들을 기리는 '작고문인관'과 '스승관', '동문관'이 작가의 서재처럼 소박하게 정겹다. 

* 동구 중앙로 302 T. 062-239-8850





오늘은 그 동네에서 신나게 놀아볼까?

종일 놀만한 청춘의 동네, 염주동 & 풍암동

광주에서 사춘기를 보낸 이들 가운데
이곳 염주체육관 스케이트장의 추억이 없는 이들이 드물다.
입장료도 싸고, 스케이트화도 3,000원이면 빌릴 수 있다.
주머니는 가볍고 마음은 뜨거운 청춘남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있을까.



월드컵 4강 신화의 뜨거움이 남아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그 바로 옆에 영주체육관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스케이트장부터 경마장, 양궁장,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테니스장까지! 그야말로 체육계의 멀티플렉스라 부를만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어디 그뿐인가. 광주에서 열리는 아이돌들의 콘서트가 단골로 열리는 곳도 이곳 영주실내체육관이다. 수용인원이 자그마치 9000명이 넘는다.

광주에서 사춘기를 보낸 이들 가운데 이곳 영주체육관 스케이트장의 추억이 없는 이들이 드물다. 입장료도 싸고, 스케이트화도 3,000원이면 빌릴 수 있다. 주머니는 가볍고 마



음은 뜨거운 청춘남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있을까. 특히나 이제 막 ‘썸’을 타는 사이라면 이곳이 최고의 데이트코스다. 넘어지고, 잡아주고, 끌어주는 사이 썸을 넘어 특별한 사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밀고 당기며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의 선수가 되고 싶다면, 염주체육관 빙상장으로 고고씹!

염주동에서 풍암동에서 넘어오는 길목에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다. 미디어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장비를 대여해주기도 한다. 영상에 관심 있는 이들을 센터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영상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센터 앞마당에서 공





연이 펼쳐질 때가 많으며 시설 내부에도 볼거리가 많다.

미디어센터를 지나 풍암동으로 들어서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호수공원이 펼쳐진다. 공원의 면적만 무려 '24만 4,587㎡'. 산책하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 온 사람들, 조깅을 하러 나온 사람들. 호수공원을 둘러싼 산책로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다.

장미가 피는 계절에는 호수장미원에서 장미축제가 열린다. 굳이 장미가 아니더라도 호수공원 구석구석에 핀 야생화도 아름답다. 호수에 일렁이는 햇살과 바람이 마음을 한없이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

* 광주월드컵경기장 : 서구 금화로 240 T. 062-604-2002

영주체육관 : 서구 금화로 278 T. 062-604-1400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서구 화재로 905 T. 062-650-0300

풍암호수공원 : 서구 풍암동 491-5

광주쌍암호수공원



“
 팽주 팽산구에 자리한 쌍암호수공원은
 호수주변을 따라 잘 조성된 철쭉꽃 군락지와 소나무 숲이 좋아
 시민들의 문화광장이자 휴식처다.
 공원 하나가 그 어떤 복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걸 시민들은
 이 공원에서 실감한다.
 ”





양산호수공원

“
한때는 양산동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방죽이
이제는 시민들의 가슴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호수공원이 되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연방죽이라 연꽃이 피는 여름이면
연꽃호수의 장관을 보러온 이들로 북적인다.
”







세상에 없는 시간들 속으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충혈된 빗방울이 창문에 눈알처럼 매달려
빈방을 바라본다 창문은 이승에 잠시 놓인
시간이지만 이승에 영원히없는 공간이다
말하자면 내 안의 인류(人類)들은
그곳을 지나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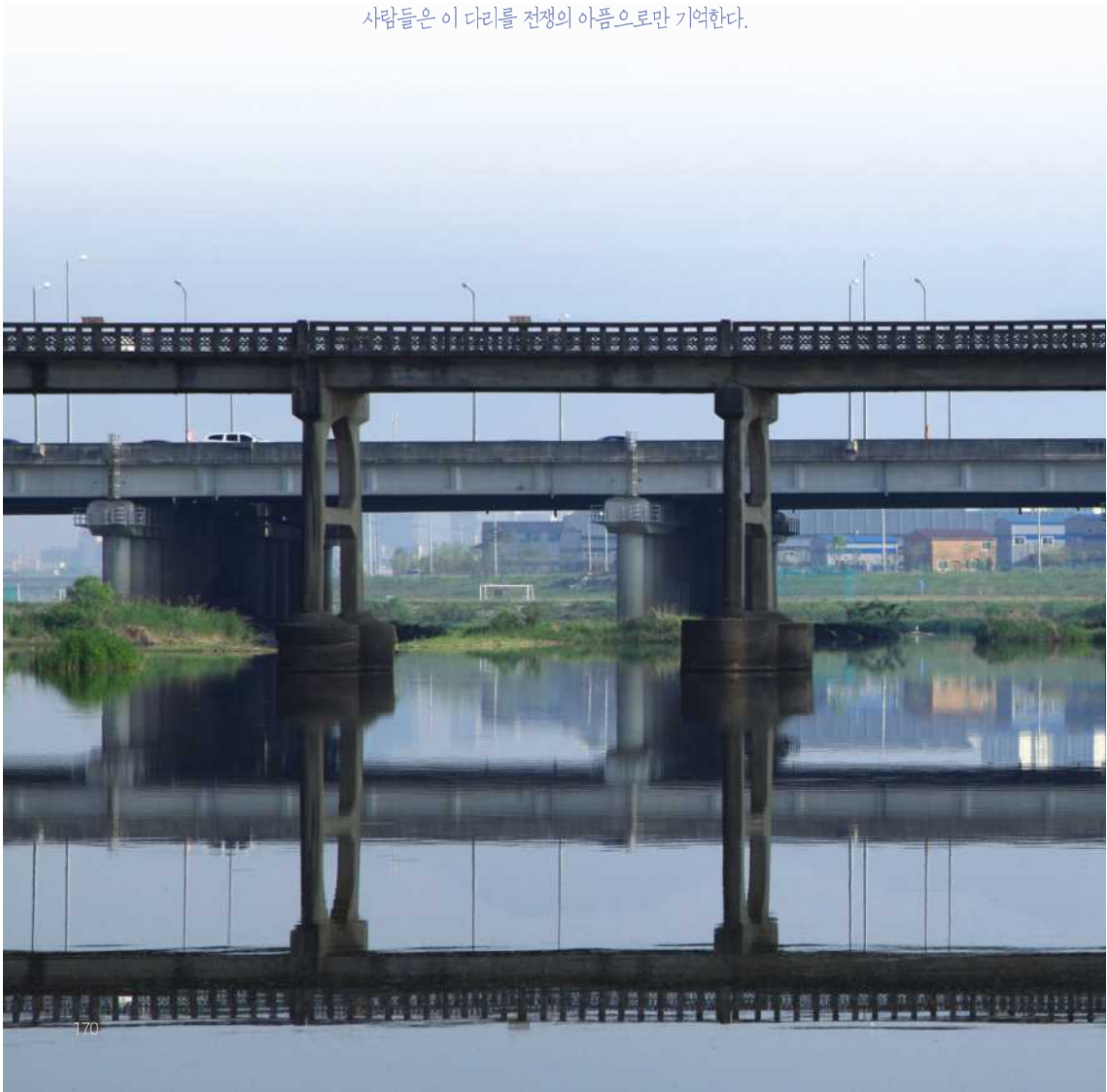
*감정주 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중에서

1950년 국군에 의해 폭파되었던 비극의 다리

영산강 위 옛 산동교

폭 6m, 길이 228m.

일제 강점기인 1934년 목포와 신의주를 잇는 국도1호선의 일부로
건설되었던 다리. 지금도 여전히 영산강 위에 서있지만
사람들은 이 다리를 전쟁의 아픔으로만 기억한다.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7월 하순, 북한군들은 장성을 넘어 광주로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북한군에 밀리던 남한군은 한밤중에 다리 아래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전차가 광주로 넘어올 수 없도록 진입로인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였다. 새벽녘 다리는 두 동강이 났고, 다리 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사이 남한의 군경합동부대는 너릿재를 넘어 화순 쪽 동부지역으로 후퇴를 했다. 2011년에 이 다리는 교각으로는 드물게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다.





1934년 일제에 의해 건설되었던 길이 228m, 폭 6m의 콘크리트 다리인 산동교는 새로 다리가 놓아지면서 옛산동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졌던 국도 1호선에 위에 놓여 있는 유일한 다리다. 시절은 변해 다리를 둘러싼 도시의 모습도 달라졌고 사람들도 변했지만 다리는 상처를 안은 옛 모습 그대로 서있다. 상처 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건네주던 옛산동



교는 이제 ‘역사가 숨 쉬는 다리 공원’이라 불리며 오늘의 아이들에게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아픈 옛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옛 산동교**

2011년 11월22일 광주 북구 동림동 122-31번지에 위치한 옛 산동교는 광주 시내에서 유일한 6·25 현충시설로 국가보훈처에 최종 지정됐다. 현충시설은 추모탑이나 기념비, 기념관 같은 구조물이 대부분이다. 옛 산동교는 드물게 현충시설로 지정된 다리가 되었다. 6·25라는 아픔의 역사를 견뎌낸 상처의 다리이기 때문이다.



극락강역에 내리면
‘극락’ 같은 평온을 맛볼 수 있을까?

극락강역

불교적이고 철학적인 이름을 지닌 탓에 많은 시인들이
극락강에 대한 시를 썼다. 시적이고 몽환적인 이름을 지닌
극락강에는 간이역인 극락강역이 있다.

기차역마니아들의 모임인 ‘열차사랑동호회’가 선정한 ‘가보고 싶은 5대 간이역’에는
눈 내린 직후의 절경에 광부의 삶이 배어 있는 태백선 함백역, 증기기관차의 급수탑
이 남아 있는 중앙선 화본역, 협궤철도의 추억을 담은 수인선 소래역, 아직도 남아 있
는 철길에 돌로 장식한 문경선 불정역, 인상적인 역 이름 못지않게 예쁜 역사의 광주
선 극락강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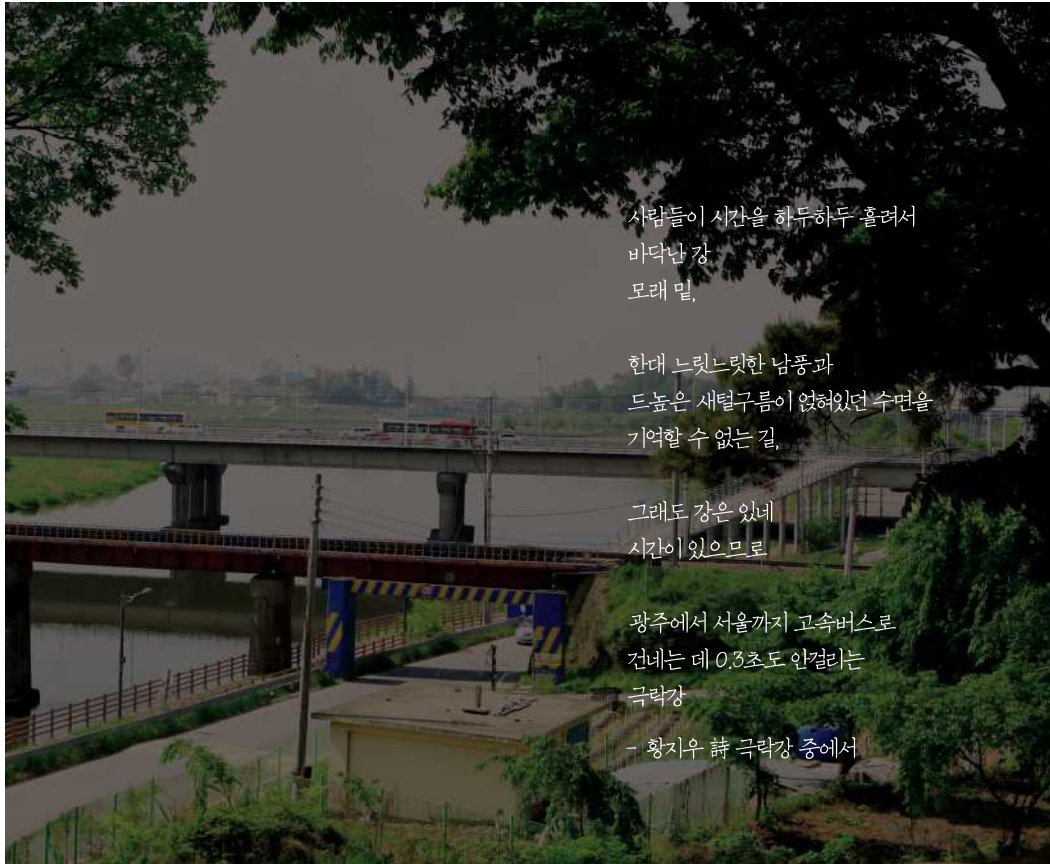
동호회의 말대로 인상적인 이름 ‘극락’의 유래는 깊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갈라지는
이 강가에는 조선시대 나라에서 세운 여관이 있었다. 그 국립여관의 이름이 바로 극
락원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극락진, 극락원이 바로 그곳이다.

다분히 불교적인 느낌을 풍기는 이름 탓일까. 극락강역은 그 이름처럼 대도심의 밖에
서서 바빠 돌아가는 삶을 관조하듯 있다. 1922년에 역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도 특
이하다.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철도를 개설한 민간철도회사가 승객몰이를 위해 극
락강 풍영정 앞 넓은 백사장을 수영장으로 홍보했다. 수영장까지 열차를 타는 사람에
게는 할인금액을 적용한다는 광고도 냈다. 수영장을 찾는 승객들을 내려주기 위한 입
시역도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극락강역이다.

지금은 무궁화 열차가 하루에 여덟 차례나 선다. 그래도 간이역은 한적하다. 간이역
만이 가진 스산한 아름다움이 참으로 철학적인 역의 이름에서, 역사의 풍경에서 쓸쓸
히 묻어난다. 

* 극락강역 : 광산구 목련로 310-23 T. 1544-7788





역사의 격랑을 살아야했던 청춘들의 흔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 광주제일고등학교

독립문구수퍼라는 학교 앞 문구점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당시 호남 제일의 명문고였다.





역사의 뜨거운 순간을 만나는 일은 항상 무겁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운동으로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항일운동이 광주학생운동이다.

학생, 대중이여 결기하라!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결사·집회·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용감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결기하라.

전사여 힘차게 싸워라.



당시 학생들이 내걸었던 격문은 절박하고도 순수하다.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을 건
딘 끝에 저 격문을 내걸고 김정교복을 입은 채 거리로 달려 나왔을까.

광주에는 일제강점기 피 끓는 청춘의 시절을 살아야했던 학생들의 항일운동 흔적들
을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광주제일고등학교, 그리
고 지금은 자연과학고로 이름이 바뀐 옛 광주농업고등학교와 전남여고 등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는 당시 역사적 상황과 이후 재관과정까지 사료들이 남
아있고,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학습 자료들도 마련되어있다.

학교 앞 문구점 이름이 눈길을 끄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당시 호남 제일의 명문고였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 탑에 새겨진 이 순정한 문구는 그 순정함으로 인해 쫓긴 여운
을 남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생명이라는 외침. 어느 위인의 격언이 이보다 더 강
렬할까.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 서구 백일로 30 T. 062-221-5500

광주제일고등학교 : 북구 독립로 237번길 33 T. 062-239-8850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들고

도시 속 농촌을 여행하다
- 광주둘레마을탐험

광주의 외곽은 여전히 농촌이다.

도시에 속해 있지만 옛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들이
광주 둘레에 펼쳐져 있다.

문화관광탐험대가 도시 속 농촌마을인 둘레마을을 탐험했다.

노거수와 우물, 그리고 정겨운 이들이 살아가는 마을 속으로
렛츠 고!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를 찾아라!

나주오씨 집성촌 내동마을

아직도 마을 앞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는 마을이 있다. 나주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하마비가 있었던 마을,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이다. 나주오씨 집성촌인 이 마을은 1500년대 말 선조 때 우의정을 지냈던 금양군 오겸(吳謙)이 처음 들어와 터를 잡았다.

옛날에는 마을 인근에 느티나무 군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다. 그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매년 정월 열나흘날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를 지낼 때면 농악꾼들이 지신밟기를 하고, 걸궁 곳을 쳤다.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는 마을사람들이 당산나무에 감을 줄로 줄다리기를 했다. 남녀 편을 나눈 줄다리기에서 여자 쪽이 이기면 풍년, 남자 쪽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 한다.

지금은 54호가 살고 있는데 그 중 나주오씨가 25호다. 🚗











400살 넘는 귀목을 보고 용추계곡을 향해!

무등산 능선 용연마을



용연마을은 광주 동구 지원(池元) 2동에 있다. 옛 지명은 지한(池漢)면인데 1957년 수원지가 생기면서 지원동으로 바뀌었다. 화순으로 통하는 무등산 능선의 북사면에 안겨 있는 용연마을 입구에는 400살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다. 마을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다.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고종 13년 가뭄 때 전라감사 정범조가 이 마을에서 기우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마을에서 올라가는 용추(龍湫)계곡에서 행해진 기우제였다. 지금은 당산제와 기우제 모두 맥이 끊겼다. 📱

2백년 된 돌담길을 걷고 돌아 연자방아를 만나다

삼도동 쌍내마을

1908년 오웬 선교사가 세웠다는 오래된 교회가 눈에 띄는 쌍내마을. 6·25 전엔 100여호가 있었으나 동란 후 학교가 불타고 주민들도 이주해 마을이 작아져서 쌍계와 내동 두 마을이 합쳐져 '쌍내'라고 부르게 됐다. 전통의 돌담과 흙벽,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여 원래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초입엔 선돌이 있고 당산나무로 크게 자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광산구 보호수인 느티나무가 있다.

쌍내마을 돌담은 마을주민에 의하면 약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 유난히 돌이 많아 땅을 개간하면서 자연스레 돌담을 쌓게 되었을 거라 짐작을 한다. 일반적으로 돌담은 돌과 흙으로 쌓는데 비해 쌍내마을의 돌담은 돌만 올려 담을 쌓았다. 그래서 200년 이상 보존이 되었다.

쌍내마을은 옛날 한양에서 목포 가는 길이었던 전주→장성→임곡→쌍내→다시→목포 통로 역할을 했다. 마을 중앙에는 우물이 있어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하며 물 길던 모습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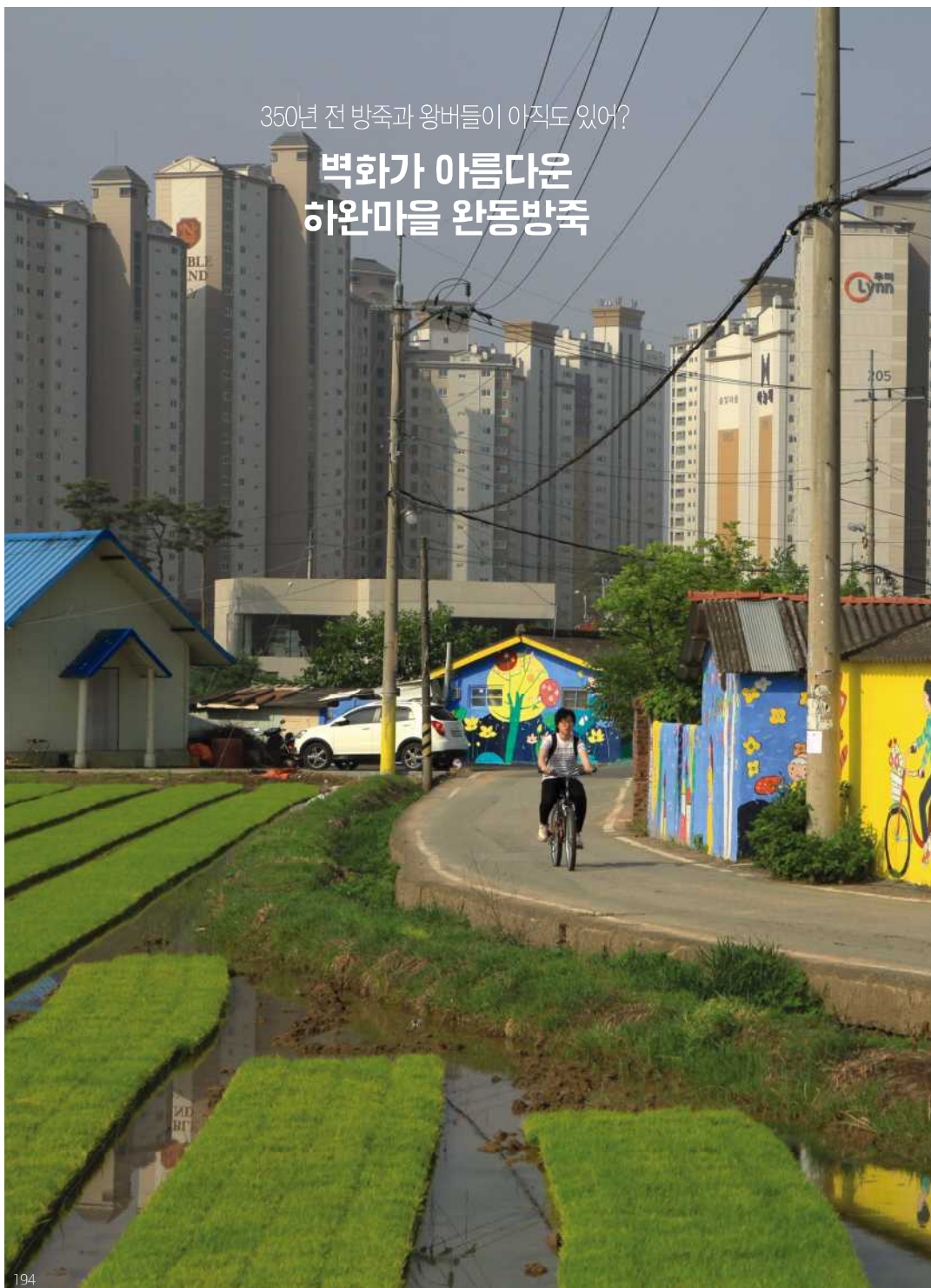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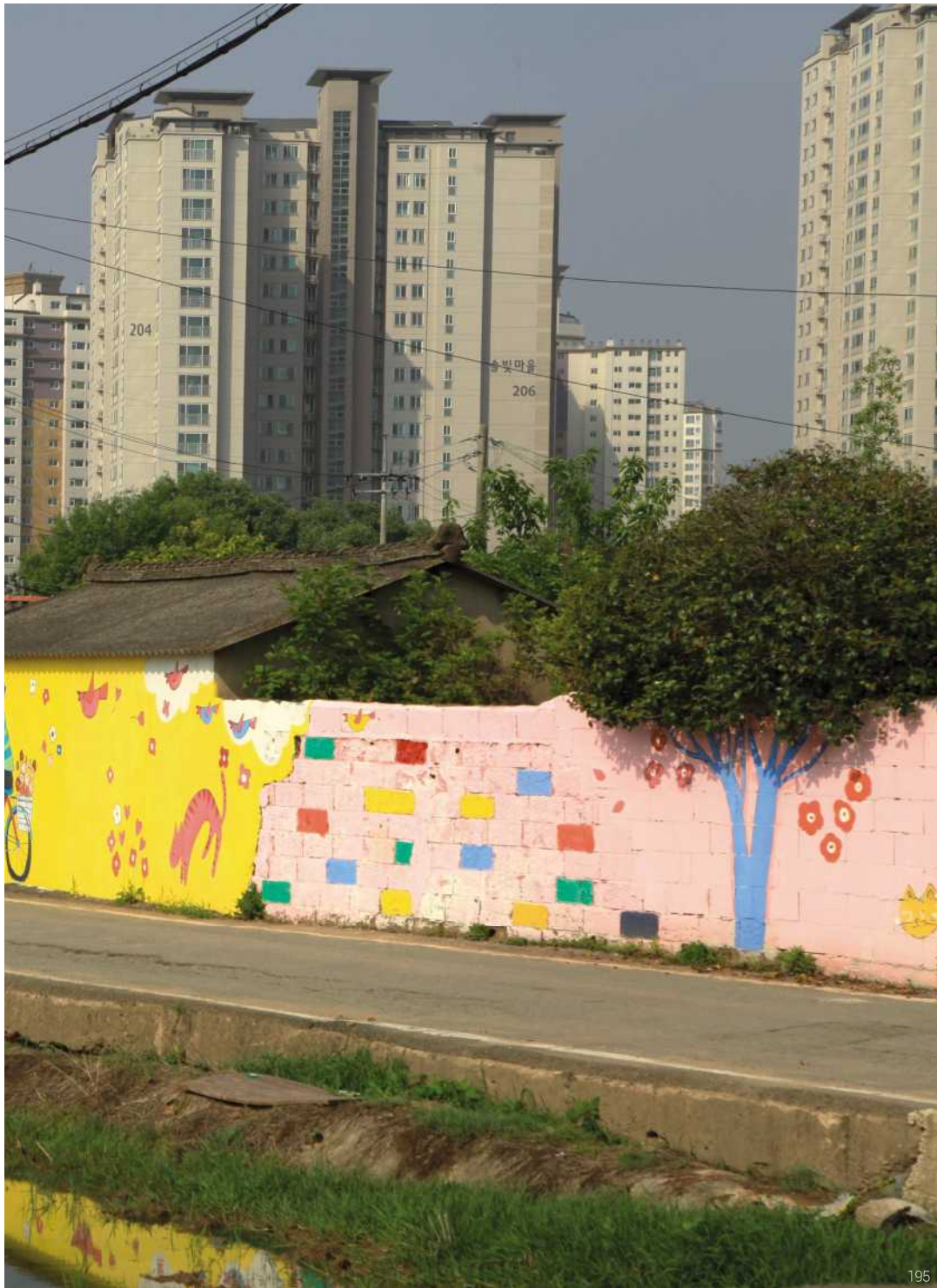




350년 전 방죽과 왕버들이 아직도 있어?

벽화가 아름다운 하완마을 완동방죽







지금은 20층이 넘는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가 즐비한 광주 하완마을의 옛 이름은 완동마을이다. 원래 광산군(光山郡) 천곡면(川谷面)에 속한 완동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완동마을이 상·하 마을로 나뉘었고 아래쪽에 위치한다하여 하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하완마을 담벼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린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벚꽃이 지고나면 완동방죽에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마을에서 ‘비아·수완 왕버들 연꽃축제’를 열게 된 까닭이다. 수완동 왕버들은 하완마을 앞 모정 옆에 한 그루가 있고, 하완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한 그루가 더 있다. 수령이 약 350~400년. 해방 전까



지는 마을사람들이 당산제도 지내고 농악놀이도 하던 곳이다.

1879년에 편찬한 광주읍지〈光州邑誌〉에 보면 완동방죽에 대한 기록이 있다. 나무의 나이와 방죽의 나이가 모두 350년을 넘었음을 말해준다.

마을은 고요하고 왕버들과 방죽은 마을의 고요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말없이 증거하듯. 📷



5·18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슬픈 마을

숫대로 상처를 달래는 주남마을





광주에서 화순으로 이어지는 29번 국도변에 위치한 주남마을. 마을입구의 노란색 버스 정류장은 주남마을의 아픈 역사를 상징한다. 1980년 이 마을은 제7공수부대와 제11공수부대가 주둔했던 지역. 당시 공수부대는 광주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17명이 죽음을 당했다. 부상자 2명마저 마을 뒤 야산에서 학살이 됐다.

2010년에 마을 주민과 광주YMCA, 5·18기념재단은 마을 뒷산 언덕에 위령비를 세웠다. 치유를 상징하는 솟대도 마을 입구와 계엄군 주둔지, 위령비 주변에 세워졌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일어났던 비극의 역사. 그 상처는 무엇으로 아물 수 있을까. 📱

육판리 채소로 유명한 무공해 마을

여섯 판정승이 나올 지세 육판리

광주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다 보면, '육판리'라는 큰 표지석이 눈에 띈다. 행정구역상 광주시 동구 내남동 내지리(육판리)로,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3정승 6판서'가 배출 될 지세(地勢)를 타고났다고 하여 '육판리'라 불리는 마을이다.





열 여섯에 이 마을로 시집와 살고 있는 정옥희 어르신(83세)의 말씀에 따르면 2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앞 우물을 썼다 한다. 지금도 마을사람이 상을 입으면 꽃상여를 맨다는 마을, 광주도심에서 불과 차로 10여 분 거리인데도 완전한 시골이다.

무등산 왼쪽자락에 포근히 안긴 육판리는 산세가 수려하여 '육판 8경'으로도 유명했고 지금은 무궁해 육판리 채소가 명물이다.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에 내다 놓으면 순식간에 팔려 나간다. 📱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

광주 광산의 3대 동천(洞天) 이야기



왕동(旺洞) 용진동천(湧珍洞天), 용진정사(湧珍精舍)

용진산을 비롯한 이 지역의 산봉우리가 용처럼 솟아나며 왕동저수지 주변을 떠받들고 '빛이 나며 번성할 마을'이란 뜻이 담겨있다. 경치가 매우 빼어나 신선이 노닐 만큼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한 용진동천. 이런 자연을 배경삼아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후석 오준선이 설립한 용진정사. 용진정사는 한말의 도학자 오준선(1851~1931)이 나라가 병탄되자 용진산에 강당을 짓고 후학을 가르쳤던 곳이다. 이곳은 원래 용진사가 있던 곳으로 삼봉 정도전, 우암 송시열 등이 다녀갔던 곳으로 전해진다.

그는 조선이 가장 어려웠던 암울한 시기에 살았다. 그러나 일평생을 철저하게 일제에 저항하며 한말 호남의병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는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한말 기호 사림의 종장으로 절의에 뛰어나 의와 예 그리고 도를 철저하게 실천하였다.
 호남 의병장 중 이름난 금재 이기손(錦齋 李起巽 1877~1937), 의재 오상렬(義齋 吳相烈 1878~1908), 죽파 오성술(竹坡 吳成述, 1884~1910) 해산 전수용(海山 全垂鏞) 등은, 오준선의 제자들이다.



명도동(明道洞) 명곡마을 대명동천(大明洞天), 영사재(永思齋)

나주 오씨 집성촌인 명곡(明谷)마을.

멀리서 보면 그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마을을 가리고 있는 것은 ‘길다란 초록의 띠’, 짙푸른 소나무 숲이다.

“동네를 가려 놓아야 좋다고 조상님들이 마을 입구에 심었다고 그래.”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논과 논 사이에 둔덕을 마련하여 소나무를 울창하게 심은 것을 보면, 비보 수림의 용도였던 모양이다.

영사재(永思齋)는 대명동의 명곡, 골짜기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골짜기가 길어 장탄(長灘)이라 한다.

영사재(永思齋)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썼으며 숭명의리(崇明義理)를 길이 잊지 않겠
다는 춘추대의의 표현이다. 1906년 의병을 일으킨 죽봉(竹峰) 김태원(金泰元)장군의 진
중에 무기를 공급하던 오상열(吳相烈)등이 광산(光山)지구 전략본거지로 삼았던 곳이기
도 하다.



동호동(東湖洞) 석문동천(石
門洞天), 빙설당(氷雪堂)

나주오씨 석문공(石門公)파 시
조 석문공 오이익(吳以翼
1618~1666)의 재실인 빙설당
(氷雪堂)은 석문산에 있다.

석문산은 마치 성(城)처럼 생겨
서 구한말 전해산(1879~1910)의
병부대가 주둔하며 일본군과 치
열한 접전을 벌인 곳으로 유명
하다. 이곳에 한말 호남 의병의
사표(師表)인 오준선(吳駿善)묘
가 있다.

까치가 많이 사는 마을 숲!

동림(東林), 작림(鵲林)마을



탐험대가 탐험할 때 늘 동행하는 친구들이 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 탐험때에도 그랬다. 바로 새들이 현장에서 바로 합류하는 탐험대원들이다.

매화 꽃피는 날에 휘파람 소리를 내면 냉큼 달려오는 찌꼬리!

내 영역임을 과시하는 드르륵~ 소리가 온 동네를 울리는 솟 청딱따구리!

공중에서 날아가는 잠자리를 잡고서 기분 좋게 소리내는 파랑새!

동네어귀 높다란 나무에 집을 짓고 그 동네의 망명대원을 자청하는 까치!

머리가 좋아 동네사람들, 차량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보는 차량이 보이면 경계본능이 발동해 경계음인 울음소리로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까치!

그래서 우리속담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라는 말이 있지요! 📱

동약(洞約)과 향약(鄉約)의 깊이보기

양과동정(良瓜洞亭)



조선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 남아있는 양과동정(良瓜洞亭). 조선시대 건립되어 마을 동산에 있으며, 다른 이름은 간원대(諫院臺) 제봉 고경명(高景命)의 별서(別墅)다.

간원대는 이곳 출신들이 간관(諫官)으로 많이 배출되어 여기에서 국사를 의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은 동약(洞約)과 향약(鄉約)등의 시행처로도 사용되었다.

정자의 제액(題額)은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이 쓴 것이다. 정자 내에는 동정입의서(洞亭立議序)와 중수기(重修記), 고경명의 제양과모정(題良菰茅亭), 박광옥(朴光玉)의 차유곡모정운(次柳谷茅亭韻), 제간원대(題諫院臺), 향약 등과 관계된 현판이 걸려 있다. 📖

원림(園林) 아름다운 숲

만취정(晩翠亭)

광주, 전남지역에 산재해있는 누정 중에는 보전상태가 양호한 원림(園林)이 다수 보전되어 있다. 담양의 독수정, 화순의 임대정, 광산구



에 불환정(不換亭)과 만취정(晩翠亭)이 그곳이다.

우리 조상들이 집안이나 담장 밖에서 자라는 나무의 모습만을 보고서도 그 주인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주는 정신적, 경제적 효과들은 크다.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고자 노력해 오신 우리 선조들의 교육방법은 이보다 더 좋은 본보기는 없을 것 같다.

만취정(晩翠亭)은 광산구 동호동 남동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솔(松)이라는 나무는 빛과 기개가 푸름의 절개를 지키고 겨울나기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고 지켜 내는 인목(忍木)으로써 정자의 위치와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만취(晩翠)라는 소나무 같은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유래가 담긴 만취정은 이 마을 출신 이면서 한말의 대학자인 만취(晩翠) 심원표(沈遠杓 · 1853~1939)선생이 지은 정자이다. 📖



고봉(高峯)의 훈이 깃든 정자후)

칠송정(七松亭)



너브실 마을 입구 돌담이 길게 이어지고 대숲과 함께 운치가 있는 곳에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도학사상을 잇기 위해 건립된 '고봉학술원'이 있다. 그 옆에 칠송정(七松亭)이란 정자가 서 있으며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장남 함재(涵齋) 기효회(奇孝會)가 지었다. 📖



문화관광
탐험대의
노트

























4기 문화관광탐험대원을 소개합니다



한진수 탐험대장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탐험활동을 열정 하나로 뛰어왔습니다.
광주에 사시면서도 광주를 모르는 분 또는 광주를 찾아오신 분께
광주를 알리고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올해 수고하신 탐험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선철 대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재미난 일년을 보냈습니다.



김가현 대원

언제 11월이 오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은 조용히 가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탐험하는 기간 동안 '길이 길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많은 분들 덕분에 그 흔적을 따라 걸었던 느낌이다.
하나를 보는데, 열 가지를 들었기 때문일까.
우리가 함께 걸으며 웃었던 시간이 아련하다.
(생각해 보니 뛰어다니는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김미정 대원

광주 구석 구석에 박힌 숨은 진주를 발굴하는 심정으로,
작은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탐험대 활동이 벌써 갈무리 하는 때가되었습니다.
취재에 따뜻하게 해주신 님들과함께 이끌어 주신탐험대원들
그리고 재단팀 모두행복한 추억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진 대원

지난봄 매화향기에 취해서! 온몸을 땀으로 적신 여름!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느낀 가을의 낭만을 느끼면서
묵묵히 탐험을 이어온 이유는
제4기 문화관광탐험대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김을현 대원

옛날의 문화는 지금이란 연장선상에서 피어나 사철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람과 공기처럼 늘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기에 고마움을 몰랐다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광주문화관광탐험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옛사람들의 숨결을 찾아내고
그 마음까지 살피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지혜로
온고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중운 대원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과 문화와 예술,
그 속에서 터전을 일구고 삶을 영위하는 그자체가 아름다움 이었다.
광주의 보물은 멀지도 꼭꼭 숨어 있지도 않았다.
어쩌면 우리 탐험대가 찾은 게 보물의 다가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이 우리 광주의 소중한 보물일지 모른다.



헛헛한 가슴을 채워줄
마법의 여행지, 광주!
그 가슴 박찬 풍경들!



김화선 대원

도심의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천둥번개와 우박, 장대같은 비와 폭우가 길을 막았으나 탐험대의 발길을 막지는 못하였으며 이른 새벽 양동시장 및 십야에 대인시장 등 산과 들녘, 강줄기를 따라 열정을 다 하여 발품을 팔았다. 우리고장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전문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정식 대원

광주를 홍보하는 책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 결과 광주전문록이 나올때 마다 저는 이쁩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할 결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숙 대원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2014탐험대 활동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때론 연가까지 써가며 열심을 다했던 대원들이 자랑스럽네요~ 내년에도 재미있게, 알차게 활동하는 탐험대가 될것을 기대합니다~





심인섭 대원

직장에 다니다보니 항상 주말은 공시디망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놓고 광주의 숨은 보석들을 찾으러 6개월을 헤맸다.
그렇게 나의 조그마한 눈에 비친 거대한 광주는 속 깊이를 알 수 없는
양파처럼 매주 토요일 탐험을 나서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미란 대원

참고개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광주를 다본 것 같고 광주를 다알 것만같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문화탐험대활동을 하면서 새삼 느꼈다.
동네를 구석구석 한바퀴 돌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미처 못본 것은
일부러 두마귀를 도는 수고로움을 더해야 볼 수 있었다.



정보영 대원

돌아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탐험대가 더 발전하여,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광주의
숨겨진 문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2014 문화관광탐험대를 통해 그 무엇보다
'열정'을 얻은 것 같다. '열정'을 얻었는데, 정작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는 아니었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든다.



조미숙 대원

항릉강변 누정길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양지쪽 담벼락에 모여 앉아 깊게 폐인 주름진 얼굴로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시던 그 모습에서
돌아가신 내 어머님 아버님 같은 포근함을 느낄수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정희 대원

무더운 여름날씨 버스중점 탐험 끝자락에 더위에 지치고 힘들때
한입 베어물던 아이스크림의 그 시원한 맛을 어찌 잊을수 있을까~?
그래서 대원들간의 끈끈한 정이 더 생기고
가족같은 마음으로 힘든 탐험을 할수 있었던것 같다



김지원 팀장

처음 만난 분들이 작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서비스 업"에 종사한다고 대답합니다.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기에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그동안 탐험대원들의 헌신과 참여를 지켜보면서 본업에 충실했는가 자성해봅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김형미

내가 알지 못했던 광주의 새로움을 알게 되었고
익숙한 곳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곳을 탐험하게 될까 기대된다.











헛헛한 가슴을 채워줄
마법의 여행지, 광주!
그 가슴 벅찬 풍경들!



문화관광탐험대의 네번째

광주거문록

발행처 |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062-670-7400

발행인 | 서영진

글·사진 | 제4기 광주문화관광탐험대 15명

강선철 강가현 김미정 김세진 김윤현 김종윤 김화선 박경식

박현숙 심인철 이미란 정보영 조미숙 한정희 한진수

구성작가 | 김인정

발행부서 | 기획홍보팀

총괄팀장 | 김지원

총괄담당 | 김형미

만든 곳 | 이미지뱅크

ISBN 979-11-86088-03-6

ISBN 978-89-968403-0-5 (세트)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a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32610)

발품 팔아 찾아낸 광주 구석구석
그 가슴벅찬 풍경들!



문화관광탐험대의 네번째



광주 견문록



9 791186 088036

ISBN 979-11-86088-03-6

ISBN 978-89-968403-0-5 (세트)